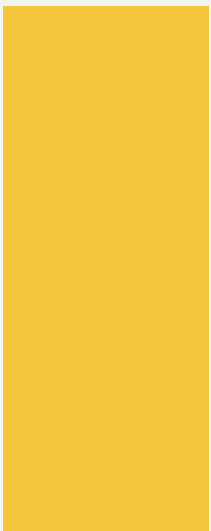


익숙함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미담

익숙함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목차

땅 고르기

만남 미담을 소개합니다	08
자기존재 소개	12

씨 고르기

내 몸 사용하기	16
함께 사는 것의 즐거움	22
협동? 협업? 팀워크!	27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32

싹 틔우기

1.방과 집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43
주거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나마주갈을 만나다	56
나에게 집이란	67

2.두려움과 걱정

나의 두려움에 대하여	77
무사히 OO할 수 있을까?	89

3.일과 원동력

나의 일에 대하여	105
원동력, 나를 움직이는 힘	127

움트기

1. 안전한 공간과 새로운 언어

극단 Y, 안전한 공간과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	139
연극 '거절하는 방법' 후기 거절을 생각한다	186
연극 '탈피' 후기 탈피를 보고나서	192
연극 '탈피' 후기 억압으로부터의 탈피	194
함께 연극을 보자고 제안한 이유	198

2. 김공룡과 친구들

연결되고 싶어서	204
마주보는 사람들을 만나다	208

함께하기

캐념 청년 먹거리 연구 소개	220
캐념 반려 인간으로 사는 법	223
2기 소감 함께한 사람들	225
월별 활동 기록	228

1

땅
고
르
기



우리는 익숙함을 다르게 바라보기로 했다.

미담을 소개합니다

진아

미담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담이라는 공간을 소개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떠오르네요. 약 2년 동안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운영한 청년다양성 모임의 이름을 ‘미담’이라고 지어봤는데요. 미래를 위한 담론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어쩌면 조금은 거창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이름을 만들게 되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현재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현재는 어떻기에, 또 다른 삶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우리는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도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두 가지가 미담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질문이에요.

미담에 모인 사람들은 20대~30대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만나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어요. 집중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의 삶이 어쩐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느끼는 행복과 분노 그리고 무기력함에

대해서 나눌 때입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대체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행복하다는 감정은 내가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분노는 억압적인 구조 안에서 부당함을 느낄 때. 무기력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로 왜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나를 옥죄고 있는 커다란 사회 구조의 부당함을 마주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배제 그리고 혐오를 다시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삶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양한 논의들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눈앞에 당장 이렇다 할 사회 변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한 우리의 고민이 각자가 또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힘든 이유가 나이가 어려서, 여성이라서, 성소수자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구조가 잘못된 것이라고,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작고 배워야 하는 존재, 더 나아져야만 하는 존재로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미담이 보편적인 청년은 어떻다,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보다 개인의 일상에 관심을 더 두게 된 것은 우리는 미래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기보다 현재를 잘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회가 규정하는 보편적 정체성이 아닌 개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호명되지 않았던 청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생각을 말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다른 답을 하더라도 제시한 답을 요리조리 살피며 공동의 언어를 만드는 안전한 공간. 미담은 그런 공간입니다. 2022년에는 ‘공간’을 주제로 미담이 모였는데요. 사실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미담과 같은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미담과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존재들과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미담의 2호 무크지에서는 ‘익숙함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1호에서는 ‘사회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내용으로 무크지의 내용을 가득 채웠다면, 2호에서는, 더욱더 우리의 내용에 집중했어요. ‘그동안 일상에서 익숙하게 느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억압일 수도 있겠다, 이 사회에서 나는 낙오되고 작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내 탓이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면서 글을 써 보기도 했고, 답소를 나누기도 했고, 같은 고민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이 무크지를 보시게 된다면, 미담과 같은 작은 공동체를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 운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서로 만나서 어떻게 살았어? 힘들지 않았어? 질문을 건네면서 우리 함께 현재를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이요. 서로가 서로의 비밀 언덕이 되어주는 거죠! 이 무크지를 통해 미담의 작은 고민들이 당신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자기존재 소개



진아

부당함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익숙한 것들을 낮설게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진아입니다. 삶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이들과 함께일 때,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소리

조금 쓸모없어도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낭비를 할 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슬기

느리게, 천천히 살고 싶은 페미니스트입니다. 조용히 말 없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진진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함께, 또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우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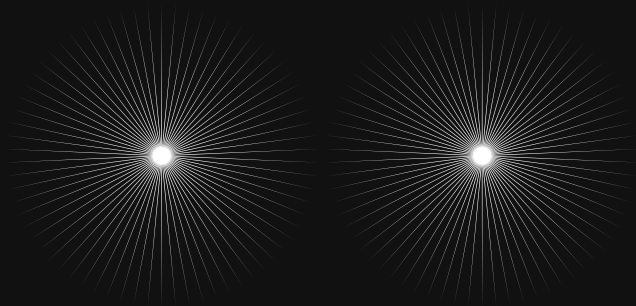
한 밤 중에 햇별을 기억하고
낮에도 밤공기를 상상하며
보편적 순간들을 찾아갑니다.





2

씨
고
르
기



요즘 나는 내 몸에 대한 감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우연처럼 기웃거렸으나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어떤 부분이 되어가고 있기도 하다.

내 몸 사용하기

소리

아니 정말 이렇게 갑자기 시작한다고?

때는 작년 가을, 극단 와이의 연극을 보았다. 그리고 그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님의 프로필을 보다가 흥미로운 수업을 발견했다.

내 고르기

‘춤’. 스트릿우먼파이터, 스트릿걸스파이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는 하나, 꽤 이전부터 나는 춤을 취보고 싶어 했다. 20대 초반에는 많은 사람이 취미를 갖고 싶어서 혹은 사람을 사귀고 싶어서 동아리 또는 모임에 들곤 하는데 나는 스트릿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다. 아마 춤추는 사람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항상 ‘춤을 추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무의식중이든 의식 중이든 생각해왔다. 수학여행의 장기자랑 무대에 나가본 적이 있거나 학교 방과 후에 댄동(댄스 동아리)에 속해있었다거나 하는 특별한 경험이 디폴트고 그런 사람들만이 춤을 즐길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나는 춤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끼나 재능이 없는 사람에 속했고, 이내 못 추는 나를 견디지 못해 동아리를 그만두었다. 춤이라고 하면 ‘아, 아득히 멀다’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랬던 내가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갑자기 왜 춤이 ‘도전해 볼 만하게’ 느껴졌을까. 바로 춤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의 멋진 생각 때문에, 여기라면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춤을 배우고 있는 블루홀을 찾아보면 수업을 신청하게 만든(!) 설명을 읽을 수 있다. 그대로 설명을 가져와 봤다.

‘블루홀은 오늘 춤추는 모두가 댄서라는 믿음으로, 최고보단 각자의 방법으로 깊이 행복한 댄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댄스 커뮤니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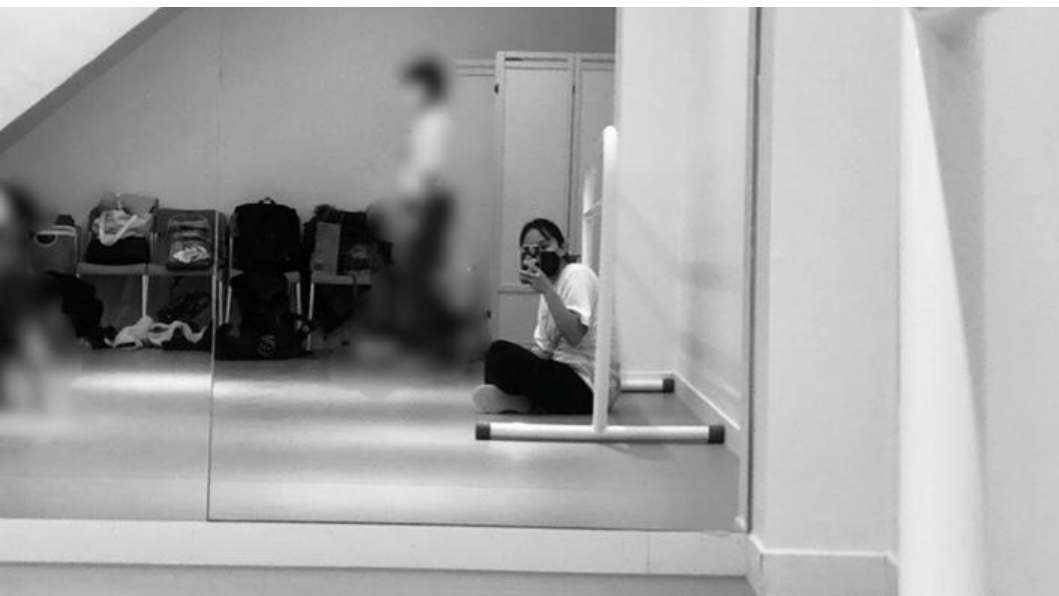
하루의 가장 긴 시간을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비밀스럽게 사랑하는 일이 무엇이든 블루홀에서는 그런 당신에게 주목하는 무대의 시간을 만들 거예요. 같이 땀 흘리며 지켜보는 동료가 되어드릴게요. 다시, 또다시 같이 뛰어들어요.¹⁾

이 안내를 읽고 여기라면 내 몸을 두어도 안전하겠다는 막연한 유혹을 느꼈다. 어디에도 춤을 잘 춰야 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 각자의 방법으로 땀 흘려보자. 난 그런 당신과 계속 같이 춤을 출 거야. 춤을 추면서 그런 말을 건넬 수도 있구나, 하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구역의 느린 학습자는 나야!

그렇게 춤을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꽤 많이 절망하기도 했다.

1 파도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블로그, URL: https://m.blog.naver.com/s_leader/222342959688



안무를 외우는 속도도 느리고, 정말 어디에다가 (내) 몸 둘 바를 모르는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다들 처음 춤을 춰본다지만 너무 잘 춘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해서는 나만 ‘안전하게 오래도록’ 춤을 못 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춤은 다정히 천천히 배워보니 ‘못 춰도’ 참말로 재미있었다. 수업을 들을 때마다 번번이 나보다 못 추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자신감의 수직 하강을 경험하면서도 어제보다 오늘 더 나는 내 몸에 익숙해진다. 나는 내가 어찌 움직이는지 보려고 거울을 본다. 이상한 몸짓과 형태를 만들어내는 몸이 지난주보다는 아주 조금 덜 어색하다. 거울 속의 나는 버벅거리고, 느리고, 움츠러져 있지만, 반복할수록 조금 확신이 생기고, 정확해지고, 당당해지고, 조금 더 몸에 힘을 주고 빼는 걸 의식하게 된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일까?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게 몸의 에너지일까? 잘은 모르지만 내 몸을 내 멋대로 움직여서 이 몸짓들로 나를 발산하고, 그 순간 그 표현을 가장 처음으로 보는 건 스스로 자신이다. 그런 자각이 새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다.

언제까지 춤이 재밌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다만 누군가가 보내준 박수보다 스스로 땀 흘리며 땀으며 재밌다고 손뼉 치는 감정을 잃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나는 나를 점점 더 잘 표현하고, 내 몸을 알아주고, 나는 좀 더 자유로울 것 같다. 춤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조금 넘었다. 여전히 못 추고 여전히 거울 속의 나는 매번 처음 마주치는 것 같이 데면데면하지만, 그래도 아마 이곳에서라면 나도 내 안의 숨겨둔 열정을 살포시 드러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자유 주제로 각자 에세이를 써보라고 미담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 떠올랐던 주제가 바로 ‘몸’이었다. 내 것이지만 가장 다루기 힘들고, 수도 없이 티격태격하며, 가장 밉기도 하고 가장 사랑스럽기도 한 것이 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보고 싶은 건 못 참는 성격 탓에 대책 없이 휩쓸려 신청한 수업 덕분에 요즘 나는 내 몸에 대한 감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우연처럼 기웃거렸으나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어떤 부분이 되어가고 있기도 하다.



COMMENTS

“ 글과 사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소리 님의 춤을 구경하면서 소리 님의 의지와 실천력에 항상 감탄하고 있어요. 언젠가 저희에게도 춤을 알려주세요! ”

슬기

“ 와 나도 춤추고 싶어졌어요. 같이 춤추러가요! ”

진진

“ 소리 님이 처음에 춤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갑자기?’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을 더 잘 표현하고, 내 몸을 인식하고,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셨다니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마침 미담에서 함께 한 활동이 그 계기가 되었다니 기쁩니다! 글을 읽으면서 소리 님에게 춤이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소리 님의 멋진 생각 덕분에 계속해서 소리 님과 연결되며 일상에서 작은 용기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아

함께 사는 것의 즐거움

슬기

나는 극강의 집순이다. 냉장고에 먹을거리만 있으면 오랫동안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어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처음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소망은 ‘완벽한 집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집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다. 대학생 때는 기숙사, 룸메이트와 자취, 혼자 원룸에서 자취 등 여러 주거 형태에 살아봤지만 고작 방 한 칸이 전부인 삶이 대부분이었다. 이 나라는 왜 청년이 방 한 칸에서 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할까? 모든 청년이 전부 다 미래를 위해 행복을 유예하며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인데 말이다. 행복주택이며 무슨 주택이며 찾아보면 죄다 원룸밖에 없다. 찾아보니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이 14제곱미터더라. 그러니까 약 4평쯤 된다는 이야기다. 마치 최저임금이 사실은 최고임금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처럼 소름이 돋았다.

직장 때문에 서울로 거처를 옮기면서, 서울에서 내 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다만 쫓겨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행복주택은 이미 대기자가 줄을 섰고, 청년주택은 사업도 시작하기 전이었다. 막막함 속에서 찾았던 것이 바로 사회주택이었다. 공익활동 소식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우연히도 우리 동네 근처에 사회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부푼 마음을 안고 지원서를 작성했다.



▲주차장 대청소를 마치고 난 뒤 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했음을 만끽했다!

제일 처음 지원했던 곳은 자기소개서를 보는 곳이었다.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공동체 친화적인 사람을 뽑기 위해 자기소개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회주택이 이런 거야? 황당했지만 바로 다른 사회주택을 찾았고, 드디어 지금 살고 있는 곳의 협동조합과 연결될 수 있었다.

2018년 겨울쯤 입주자 첫 모임을 했는데 주택이 들어설 위치에

기존에 있던 주택이 아직 철거가 되기도 전이었다. 우리는 서로서로 원하는 집에 대해 돌아가면서 말했던 것 같다. 곰팡이가 없는 집, 햇볕이 들어오는 집, 주인 걱정 없는 집 등등. 다들 집에 대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몽클해졌다. 우리는 열 번의 워크숍을 통해 내가 살고 싶은 집의 크기와 구조, 내장재도 직접 골랐다. 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에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였다. 기본 제공되는 가구와 가전이 없어서 모두 새로 구매를 해야했는데, 한 곳에 오래 거주할 수 있다는 안정감 때문인지 큰 마음 먹고 좋은 가구와 가전으로 구매를 했다. 집이 엄청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오래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2020년 여름 입주하여 반년을 보낸 후 2021년, 나는 우리 건물의 거주자 대표가 되었다. 연초마다 대표자를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표가 하는 일은 매달 1번 거주자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고, 건물이 소속된 협동조합의 이사가 되어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매달 1회 이상 참여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건물에 문제가 있거나, 옆집과의 분쟁이 있으면 대표가 주로 나서서 일을 해결하는 식이다.

우리집은 양 옆으로 4층짜리 상가와 주택을 개조한 스튜디오를 이웃으로 두고 있다. 이사를 앞두고 건물을 둘러보기 위해 모인 조합원들은 2018년까지만 해도 공터였던 부지에 아주 큰 상가건물이 들어와 있고, 그 건물 3층에는 배달의민족 B마트가 있어서 실외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옆 건물과 가까운 세대에 있는 조합원들은 실외기 소리가 너무 커서 창문을 열 수가 없고 미세한 진동마저 느껴진다고 했다. 소음 때문에 잘 수도 없다고 했다. 이 문제는 2021년 내내 우리집의 화두였다.

어느 사회주택은 반상회 한 번 할 때마다 진이 빠진다고 표현할 정도로 거주자 간 분쟁이 많다고 하는데, 외부의 적은 공동체를 단결하게 만든다고 했던가. ‘실외기 소음’이라는 외부의 적은 우리 건물 거주자들의 연대를 형성했고 내부의 작은 문제는 문제도 아니게 되었다.

어떤 조합원이 거주자 회의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주말에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옥상에서 갑자기 드르륵, 드르륵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말을 듣고 20년 전 나와 함께 복도식 아파트를 뛰어다니던 친구들이 생각났다. 그때는 옆 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았고, 집에 엄마가 없어서 문이 잠겨있으면 거리낌없이 옆 집으로 갔다. 지금 우리 건물도 그렇다. 강아지를 키우는 1인 가구 조합원이 장기 여행을 떠날 때 대신 강아지를 돌봐준다거나, 주차장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지 의논하고, 먹거리가 생기면 함께 나눠 먹고, 주차장 청소도 함께 한다.

직접 살아보니 사회주택 정책은 집값이 비싸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집을 제공하려는 것에서 출발했을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는 사회주택 가지는 유의미함이란 공동체가 붕괴된 지역 사회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안전망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회복을 누구보다 절실히 바라며 글을 마친다. ‘내가 사는 집’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한 번쯤 공동체 속에서 살아보시길!

💬 COMMENTS

“ 그대의 필체 아주 탐납니다. 제게도 노하우를 공유 부탁드립니다요..! ”

진진

“ 슬기 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 또한 제가 살아왔던 '고작 방 한 칸이 전부인 삶'을 자연스레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내 것이 아닌 저의 '원룸짜리의 삶'이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고요. 한 번쯤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보기를 가볍게 제안하는 슬기 님의 글을 통해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하고 조금은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

소리

“ 미담 모임에서 늘 함께 사는 것의 가치를 슬기 님의 경험을 예시로 말씀해주셔서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글로 실제 경험들을 마주하니 더욱 반가운 것 같아요. 외부의 적은 공동체를 단결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ㅎㅎ ”

진아

협동? 협업? 팀워크!

진진

협동조합에서 강조하는 협동의 방식이나 성격은 대체로 결사체적인 성격을 띤다. 결사체란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의로운 동지(?)라고 해야 하나. 사실 이런 공동체 성격에 크게 미련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의 ‘지속가능성’과 동시에 ‘나’를 강조할 수 있는 느슨한 공동체를 원한다.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HBM사회적협동조합의 펭귄 팀 프리너가 되다>를 보면,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근간에 대한 철학이 나온다. 몬드라곤에서 배울 점은 많다. 팀을 강조하면서도 느슨한 개인이 존중받는 분위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철학들 말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근무하고 일을 만들면서 이런 분위기를 경험해 보긴 힘들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키워드가 대체로, 일종의 경제 공동체나 결사체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와 같은 청년들과 떨어져 가는 게 아닐까?

나의 경험을 통해 협동과 연대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돌아보고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팀워크, 협업 그리고 팀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역량 있는 개인들의 느슨한 연대를 통한,
부가가치(시너지) 창출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농구를 잘하는 친구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공격을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다. 농구할 때는 ‘공을 많이 넣는 사람이 농구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애매한 사람이었다. 적당히 돌파할 줄 알고 적당히 득점하며 적당히 패스한다는 애매한 재능을 가진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새로 부임한 감독으로 인해 포인트가드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개인 기량으로 농구를 하는 것은 개인 기량 안에서 팀 실력의 한계가 정해지지만, 팀워크가 있는 팀은 한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감독의 기치는 포인트가드라는 포지션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기본적으로 팀워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샌안토니오 스퍼스라는 팀의 예시가 인상적이었다. 이타적인 플레이 그리고 기본기만으로도 개인 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NBA 리그에서 팀 게임을 통해 상위권을 가져가는 독보적인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그야말로 농구계의 교과서다. 팀워크를 위한 기본기와 그를 수행하는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팀워크가 부족한 팀은 상대적으로 경기 내내 팀워크가 좋은 팀에 끌려다니게 된다. 팀워크가 좋은 팀은 경기 중에 위기가 왔을 때에도 팀워크를 통해

분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패배하더라도 더 좋은 경기를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팀적 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되기도 한다.

고등학교 2학년~3학년 시절을 장식한 포인트가드로의 경험은 내 삶의 적성을 찾게 해준 측면이 크다.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포지션도, 실제로 개발과 디자인을 하는 메이커의 역할은 아니지만 제품을 출시하는 초반부터 전반적인 과정에 모두 개입하고 그 방향을 정한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로 의사 결정한다. 포인트가드라는 역할로 경기에 투입되면, 경기 직전에 상대팀을 분석하고, 경기에 임한다. 누가 에이스이고, 주로 구사하는 팀 전술은 무엇인지, 경기 당일에는 상대팀과 우리 팀의 컨디션을 체크한다. 그날 하루 게임을 어떻게 이길지, 수비할지 생각한다. 경기 중에는 다가오는 선수들의 습관이나 패턴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 습관을 이용해서 변칙적인 패스를 하고 탁구 랠리처럼 오가는 곳에 균열을 내고 점수 차를 만든다. 이것이 포인트가드가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다.

한 번의 수비에 실패하고 한 번의 공격에 성공하고 상대방이 던진 승부수에서 그동안 분석해온 상대 선수의 움직임 패턴과 데이터를 통해 승부수를 무마시키며, 우리의 수비와 공격은 성공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 두 점 차이가 승패를 가른다.

105vs104 (진진 팀 승리)

이를 조금 내가 지향하는 직무에 바꿔보자면 이렇다.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역할로 현장에 들어가면, 제품을 기획하고 출시하기 전까지 누가 주 플레이어이며 주로 쓰는 사업전략은 무엇인지 시장을 분석한다.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 넣는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되, 실패하더라도 그 패턴과 데이터를 파악한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테스트해 본 여러 가지 결과들을 통해 변칙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응하고 제품을 내놓는다. 반응을 보면서 제품의 방향성이나 전략을 정한다. 이렇게 반 발짝 앞서간 제품들이 시장에서 성공한다.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도 팀워크가 있다면 충분히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에 있는 협동조합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느슨한 연대를 강력한 연대로 바꾸기도 하고, 부가가치를 위해 연대를 끊기도 한다. 인적자본, 협동,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공동체가 기업 논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을 위협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역량 있는 개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치가 수반된다면 협동조합의 형태이든 주주 자본주의 형태의 기업이든 개인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보다 강력한 결사체를 이루기 위한 협동조합이나, 세상에 사회적가치와 철학을 전달하기 위한 협동조합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연대와 협동, 협업, 팀워크 혹은 그 변주에 해당하는 개념의 현상은 개개인의 능력을 잘 드러내고 펼칠 수 있는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MMENTS

“ 공동체에서 ‘자신’을 찾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함께 모여 대안적인 일을 하면서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쉽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임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주체로 잘 서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한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것,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아

“ 농구에서의 포지션과 일에서의 역할 사이를 오가는 에세이 형식이 재밌어요. 진진 님의 팀워크에 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즐겁게 읽었습니다. 특히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미담에서 경험하는 연결과 지지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튼튼한 사회적 장치들이 역량 있는 개인을 받쳐준다면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제게도 힘이 됩니다. ”

소리

“ 공동체라고 한다면 으레 똘똘 뭉친 하나의 집단을 상상하기 쉬운데, 진진 님이 생각하는 느슨한 연대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보니 매우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시도와 상상력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겠죠! ”

슬기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아

일을 하다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가게 되었는데.”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다. 어린 나에게 할머니는 나를 보호해주는 세상이었다. 시간이 지나 내가 점점 자라면서 할머니는 나보다 손도, 키도 작아졌다. 초등학생이 되고부터는 오랫동안 함께 했던 할머니를 떠나 엄마, 아빠와 서울에 살게 되었다. 이제 할머니는 일 년에 두 번 있는 명절에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명절에 할머니를 보고 다시 돌아가는 길은 내내 눈물바다가 되었다.

할머니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5년 전이었다. 할머니는 종종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있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다. 5년 전 그날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할머니의 진료가 끝나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할아버지에게 피자를 사달라 졸랐다. 피자를 받아든 할머니는 너무나도 맑은 표정으로 기뻐했고, 어딘가 어색하게 피자를 맛있게 먹었다. 그때는 “우리 할머니가 피자를 좋아했나?”하고 생각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나는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들은 할머니와 각별한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 같다. 아무도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우연한 기회에 엿듣게 되었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던 할머니가, 이제 나의 존재도 잊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치매 판정 이후에도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 내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집에서 계속 생활했다.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익숙한 공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져서, 더는 할머니를 돌보는 것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오래 살아 정든 집을 떠나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수도권 집으로 이사를 왔다. 평생을 시골집에서 생활하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파트 18층 높이에서 생활하기가 답답하진 않으실지 걱정이 되었다. 언제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의 고향인 그 집에서 오래 행복하길 바랐는데, 그건 내 욕심일 뿐이었다.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이사 오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어느때처럼 할머니를 돌보던 할아버지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더이상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내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아마 이 상황이 아니었을까. 당일 사무실에서 할머니 소식을 듣고 퇴근 후 곧바로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는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다. 평소에 직접 키웠던 손녀도 알아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그 날 따라 이렇게 답했다. “할머니 가지 말까?”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가기로 한 결정이 어쩐지 야속하게 느껴졌지만, 정말 그 방법만이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더이상 할아버지에게 힘드시더라도 할머니를 돌보는 일을 다 부담하시라고 강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른 가족들이 할머니를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최근 돌봄운동 연구에도 참여하면서 생협에서의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던 나였기에 이런 할머니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긴 한 걸까.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현실과 이토록 괴리가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절망감에 한동안 괴로웠다.

주변에서는 힘들어하는 나에게 “요새는 좋은 시설도 많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물어보고 싶다. 좋은 시설은 어떤 시설일까? 시설이 좋을 수가 있을까? 아마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머니는 정상이라고 규정된 삶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밥을 먹어야 할 것이고, 씻기도 해야 할 것이다. 어두운 밤이 무서워도 밤에는 꿈쩍없이 어둠 속에서 잠이 들어야만 할 것이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어떻게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지 모른 채 불편하고 무서운 감정이 들어도 전화기를 들어 전화번호를 눌러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할머니가 시설에 가게 된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일이 맞을까?

시설 입소로 이어지는 돌봄은 치매라는 질병을 앓는 이들을 관계적 차원이 아닌 관리적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한다. 환자의 인권보다 환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여러 명의 환자들이 알몸 상태로 줄을 서서 찬 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팔다리가 침대에 묶인 채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 비인격적 행위들이 요양 시설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관리’가 아니라 ‘관계’다. 치매가 한창 진행된 이후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꽃을 보러 나가기를 좋아했고, 손을 잡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기를 좋아했다.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나와 앉아있기를 좋아했다. 늘 보러 와주어 고맙다며 손을 꼭 잡고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할머니는 고립감으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회에서 형성하는 관계를 통해 치매 환자가 적극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그들을 가두는 것보다 환자화 가족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동안 할머니의 돌봄을 혼자 감당했던 할아버지는 늘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한다. 몸이 여의치 않아 할머니를 시설에 보냈지만, 그곳에서 혼자 지낼 할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나도 그렇다. 코로나로 면회가 쉽지 않아 할머니를 만난 지 오래됐다. 울통불통 거치지만 작은 할머니 손을 잡고 있던 기억도, 그때의 촉감도 이제 흐릿하다. 할아버지가 지내고 계신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계신 요양시설 쪽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가 되었다.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치매’라는 병이 결국에는 할머니를 일평생을 함께 했던 가족들과 떨어지게 했다. 할아버지는 스스로의 부족함이라고 자신을 탓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머니를 시설로 보낸 것은 우리 사회가 병에 걸려 비정상적으로 규정지어버린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배제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기에.

치매를 앓는 이들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존중받을 수 있는 마을이 있다면 어떨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치매라는 병이 일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개인의 비극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한다. 누군가의 아픔이 공유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될 때, 나의 할머니가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의 할아버지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아픔은 찾아온다.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고, 가족의 아픔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아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픔을 마주했을 때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효율성이 최우선의 삶의 가치라고 믿는, ‘정상’이라고 규정된 이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어떤 모습이든 각자의 모습 그대로 모두가 안전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많은 삶의 방식과 사회의 규칙들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주체적이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믿는 한, 그 작은 믿음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될 테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할머니는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언제 면회가 가능할지 모른다. 영영 할머니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렵다. 할머니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싶다.

COMMENTS

“ 우리는 모두 사람 혹은 사물에 기대어 도움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질병과 장애에 유독 엄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의 빠른 속도에 맞추느라 소외되는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글이었어요. ”

슬기

“ 늘 느끼는 것이지만, 진아 님은 자신이 겪은 상황들을 사회적으로 확장해나가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야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픔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회피하는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네요. 진아 님의 멋진 자세 응원해요! ”

진진

“ 진아 님의 글에 나온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과 장애가 일상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비극만으로 마무리된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이런 사회일수록 아무도 뒤처지고 배제당하고 싶지 않아서 더욱 발버둥 치겠구나, 하면서요. 분명 진아 님과 저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고민하고 겪는 이들은 많을 텐데, 그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쉽게 치워지고 빠르게 가려져요. 아픔이 더 많이 공유되고, 이를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회가 하루 더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그 사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각자의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하고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가까워지겠죠. 그날까지 함께합시다! ”

소리



3

쌈
티
우
기



나에게 적응은 안주하는 적응이 아닌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적응이다.

1.

방과 집 담소 모임

청년이 잠깐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집을 갖기 전에 임시 거처라고 생각하니까.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지나간 ‘방’들에 대하여

소리 : 처음으로 혼자 살아봤던 곳은 고시원인데요. 정사각형 방에 화장실, 침대, 사람 하나 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책상이 있었어요. 그런 공간에 살다 보니 사람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집에 가기 싫어서 밖을 배회하기도 하고요. 24시간 카페에서 밤을 보낸 적도 있어요. 이럴 거면 무리하더라도 월세를 구하지 싶어서 월세를 살았는데, 1년 정도 살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저와 같은 상황의 친구랑 한 원룸에 나눠서 같이 살았는데, 그 친구가 직장에 다녀서 저랑 생활 방식이 다르다 보니 함께 살기 어렵더라고요. 지금의 집 직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주공간에 살았어요. 살면서 집의 변화가 많았어요. 사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방이고요.

예림 : 6개월 자취를 했는데, 침대랑 책상이 같은 각도에 있고 문만 열면 방이 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책상 옆에 싱크대가 바로 있고, 그 오른쪽에 침대가 붙어있어요. 작은 냉장고도 있고, 오픈형 원룸 구조에 살았어요. 방 구조가 좋지 않았죠. 비건 지향을 하면서 요리를 할 일이 많은데 싱크대도 좁고 해서 불편했지만 그래도 혼자

산다는 게 좋았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본가에 들어와서 사는데, 동생이랑 같이 방을 쓰거든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진아 : 저는 현관문 바로 앞방을 쓰는데, 테트리스처럼 가구들을 배치해 놔어요. 저는 집에 가면 모든 에너지를 밖에서 다 쏟아서 쉬고 싶어서 방문을 닫고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방이 저에겐 전부예요. 최근에는 강아지랑 함께 살아서 방문을 활짝 열고 지내는데, 집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솔기 : 저는 20살부터 자취를 했어요. 처음에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어린 마음에 부모님께 미안해서 저렴한 기숙사를 골라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먼지 구덩이 속에서 신발도 신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 몰래 나와서 방을 구했어요. 큰 원룸에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갔어요. 그 친구랑 청소 습관도 맞지 않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건물에 동아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월세인데,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면 다 같이 모여서 밥도 해먹고 그런 생활이 재미있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졸업을 하고 흩어졌고, 전 취직을 해서 서울에 왔어요. 처음에는 춘천에 사니까, ITX를 타고 통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방을 구해야겠다 싶어서 아무 방이나 골랐는데, 해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겨울에도 습한 집이었어요. 다른 방을 구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세어하우스를 둘러봤는데, 세어하우스도 고시원처럼 누우면 딱 차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말만 세어하우스지 사람들이 전혀 교류가 없고 집은 좁아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짝꿍이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살았는데, 기차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창문을 열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방문이라는 게 벽이 있고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슬라이딩도어여서 싸울 때 갈 곳이 없거나, 서로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찾은 지금의 집은 사회주택이에요. 지금 집은 복층인데요. 1~2층 합해서 15평 정도 돼요. 현관문 들고 들어가면 바로 계단이고 좌측은 주방이랑 식탁 있고,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을 옷방으로 써요. 화장실 있고 세면대 있고. 머리로 말리고 그래요. 2층으로 올라가면 소파가 있고, 침대랑 티브이가 있어요. 여기서 요가도 합니다. 2층 높이가 2미터 정도 되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서로의 방을 그려보았다. 그림은 소리의 방.

“버지니아 울프가 책에서 여성이 글쓰기를 하려면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이때까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온 방이라는 게 진짜 오롯이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일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버지니아 울프는 무상으로 500파운드를 받아서 살았던 건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방에 대하여

진진 : 제가 살고 싶은 집은 공부 공간, 자는 공간, 먹는 공간 모두가 구별되는 곳이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사는 공간을 벗어나고 싶어요. 너무 오래 살았고 저는 집이라는 공간보다는 주변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기존에 살던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지역을 옮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서울이라는 지역 공간이 저에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을까? 거기에 갔을 때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슬기 : 그동안 집이 좁고 복잡하고, 곰팡이도 있고,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서울은 임대료도 너무 높고요. 임대료가 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지는데 월세는 점점 올라가는데 보증금은 점점 낮아져요. 월세를 내고 관리비까지 내고 나면, 내 월급에서 정말 남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늘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살죠. 전세로 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입하기 싫으니깐 그럴 거면 내쫓고 내가 살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살진 않겠지만요. 저는 1년마다 집을 옮기는 편이었었는데,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쫓겨날 걱정이 없는 안정적인 집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50평대의 집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된 집에 살고 싶어요. 1인 주거 최소 기준이 3평으로 잡혀 있는데, 3평은 진짜 좁아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림 : 저는 살고 싶은 집 생각하면 다른 거 크게 필요한 거 없고 투룸이면 될 것 같아요. 자는 공간이랑 나머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면 좋겠어요. 원룸에서 살면 밥을 먹으면 밥 냄새와 함께 잠을 자야 해요. 집에 방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쾌적할 것 같아요. 투룸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니까요. 너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공간을 집이라고 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슬기 : 화장실과 주방이 같이 있는 집, 변기랑 인덕션이 같이 있는 집. 진짜 어처구니없는 집이 너무 많아요. 충격이죠.

소리 : 청년이 잠깐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자신의 공간을 갖기 전의 임시 거처라고 생각하니까요. 기숙사에 살면 애초에 주방이 없는 곳도 있어요. 방을 보러 가면, 딱 자는 거 외에는 생활할 수 없는 곳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거기서 건강하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슬기 :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인간인데, 청년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주거에 살아도 된다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민간 기업이 짓고, 서울시랑 같이하는 청년 주택이 있는데, 집이 아니고 그냥 방이에요. 엄청나게 작아요. 쾌적해 보이는 정도이지, 그런데 가격은 겁나 비싸죠.

소리 : 진짜 괜찮은 곳이 있더라도, 들어가려면 경쟁이 많고요.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최대 거주 기간이 4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거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① ‘함께’ 사는 공간

솔기 : 1인 가구로 살 때, 단순히 집 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에 공동체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1인 가구로 살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밥을 차려 먹는 것이었어요. 혼자서 일을 하고 오면 기력이 다 빠져서 좁은 방 안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서울에 아무런 연고가 없으니 기댈 공간 하나 없구나 생각도 했고요.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옆집이랑 말을 트는 것도 어려웠어요. 대학생 때 건물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공동체 주택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런 대안 주거 공동체에도 지역 편차가 있어요. 몇몇 지역들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주거 공간이나 대안 공동체를 만들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진 : 주거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잘 못 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② 주거와 공정

솔기 : 얼마 전에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자꾸 카메라로 저희 집 전경을 찍더라고요. TV조선에서 왔다면서 ‘사회주택 만족도가 어떠냐’, ‘1인 가구가 16평에 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여기가 시세보다 80% 저렴한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등을 물어보더라고요.

진아 : 그것이 공정과도 연결될까요?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를 보장받는 것이 마치 엄청난 특혜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소리 : 이런 이상한 이야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한다니 어떤 생각인지 훤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요. 1인 가구가 16평 사는 게 왜 문제인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지만, 혜택받아서 살면 문제라고 보는 거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16평에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솔기 : 이 집 들어오면서 10년 주거를 보장받았는데, 서울시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언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땅을 빌린 거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건가? 주거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진아 : 미디어에서 주거 자체가 필수재의 느낌보다 사치품처럼, 성공의 상징처럼 보이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집이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도 문제죠. 돈 없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열악한 환경에 사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도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예림 : ‘나혼자산다’ 예능 프로그램도 정말 예전에는 반지하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초호화 집에 사는 연예인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사는지 보여주는 측면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진아 : 집이든 뭐든 자신의 성공을 상징한다는 생각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꼭 필요하므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아갈 때 필수 요소인 주거가 마치 노력에 따라 달라야 하고, 그것이 공정한 것처럼 떠들지 말고요.

③ 돈벌이 수단이 아닌 필수재인 주거

솔기 : 집은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집이 사유재산인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가만히 앉아서 월세로 먹고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대출을 받아서 겨우 살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소리 : 최소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집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아 : 남의 삶으로 별어서 먹고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청년의 절박한 삶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소리 :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이 들어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흔히 ‘집’하면 떠올리는 이상적인, 완벽한 집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산 청년들이 미래에도 그렇게 살 확률이 높아요. 지금 괜찮은 집에서 사는 청년이라면 나이 들어서도 좋은 집에서 살 확률이 높죠.

진아 : 진보적인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서울시의 50%는 서울시에 속하도록 이렇게 땅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웃음). 그래서 집 필요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소리 :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모아서 뭔가를 하는데 요즘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해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같이 행동한다는 인식이 많이 없어졌다고 느껴요. 청년 주거난 관련해서 작더라도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청년 주거 행동처럼요.

진아 : 가난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가난은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니까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거기에서 행동이 조직될 수 있는 거고요. 대안 공동체 지도에 더 많은 점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위한다는 말을 꺼낼 때 청년을 대상화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지역에서 주거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리 : 미담 2기 처음에 같이 하던 분이 인수마을의 생활 공동체에 살았는데, 공동체 내에 마을 밥상이라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월 10만 원을 내면 그곳에서 점심밥, 저녁밥을 먹을 수 있고요. 포장도 되고요. 그런 것도 확실히 필요해요. 이런 부분은 한살림이 역할을 맡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많아지면 우리가 모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더 체감하게 될 거예요.

솔기 : 구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좀 덜할 것 같아요. 집을 구할 때, 셰어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봤어요.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항목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 집에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고,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집이 필요해서 면접까지 봐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아 : 사회에 많은 문제가 얹혀있는 것 같아요.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단체가 얼마나 대중과 함께 가는지, 얼마만큼 주거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지 이런 고민을 함께하면 좋겠어요. 정말 더 많은 사람의 삶을,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도 발전시켜보고 싶어요.

진진 :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점검하기 이전에 그런 상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뭘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보조금 사업이 보통 목적성만 가지고 가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아 : 진진 님 말을 듣고 생각해봤는데, 서울시에 지금 청년청이 있는데, 목적성 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청년청을 활용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장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거 관련 고충을 겪고 있는, 독립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책 결정자에게 다 맡겨 놓으면 다양성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진 :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우리가 그런 사업에 들어가서 저는 좀 사고를 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극단적 방법의 사고라기보다는 드라마틱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거죠. 제안해주는 가이드라인 밖에서 놀면서 성과가 나오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거든요. ‘기존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이 있구나’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진아 님 제안처럼 청년청, 혁신파크, 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청년 주거, 1인 가구 관련 지원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지원해봐도 좋겠어요. 저희 나름의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잘 보여주고 사업 추진은 우리 맘대로 해보고요. 사고를 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좁고 열악한 집에서 살아도 되는 존재’로 대상화되는 이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정책을 바꿀 수 있을까? 끝이 없고 지난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청년의 불안정한 주거 문제부터 대안 공동체의 형성을 꿈꾸는 것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주거 문제는 한 세대만이 주장하여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이야기이고, 많은 것들이 얹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기존에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온 기성세대의 연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해봤다. 하지만 서울에 와서 그 경험들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가 함께 사는 경험을 통해 사회주택을 만나고 이것이 대안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더 많은 이들이 다른 삶을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기존에 대안사회를 꿈꾸는 많은 단체들에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정리 : 슬기

주거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나마주갈을 만나다

슬기

미담은 주거를 주제로 담소 모임을 진행한 후,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주거와 공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초청 좌담회를 기획하던 중 우연히 들린 카페에서 주거권 연구 프로젝트팀 ‘나마주갈’의 전시 ‘친애하는 남의 집’을 만나게 되었다. 미담에서 함께 나누었던 고민과도 연결되는 다양한 고민의 흔적들을 마주한 순간, 나마주갈과 함께 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이 만날 때 더 풍성하게 생각을 공유하며 다양한 언어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프로젝트팀 ‘나마주갈’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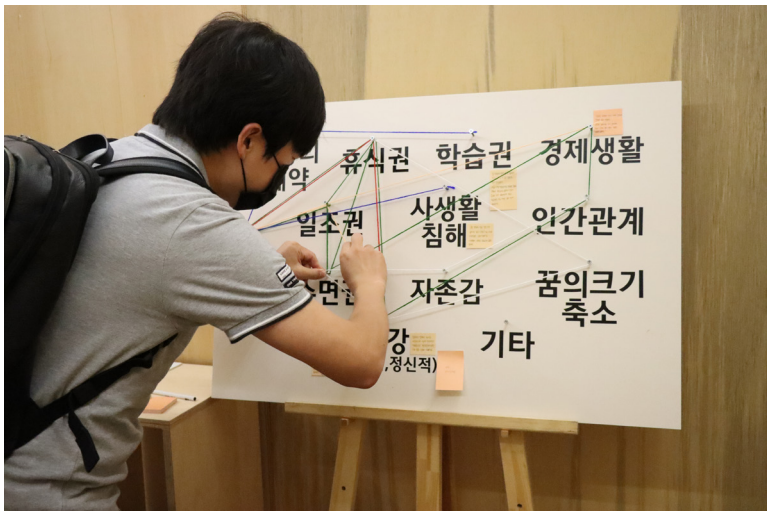
하경 :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 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거권 연구 프로젝트팀 나마주갈입니다. 원래 저희는 서로 전혀 모르던 사이였는데, ‘무중력지대 성북’에서 진행하는 2021 도시 프로젝트 지원 사업 <00 없이 살아도 괜찮을까>에서 만났어요. 프로젝트는 빈 집을 48시간 동안 점거하면서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하고 싶은 무언가를 정한 뒤에 실제로 해보는 거였어요. 저희는 빈 집에서 48시간 동안 뭘 해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작은 공론장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주거권 침해에 대한 개개인의 경험을 나누고 나름의 대안을 고민해 보며, 주거가 권리임을 알아갈 수 있는 참여형 전시 형태의 공론장이요. 그래서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거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각각이 파트를 정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전시를 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요소들을 추가했어요.

인현 : 저는 장안 생활을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공간은 사회주택은 아니고 도시재생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청년 주택이에요. 회사에서 사회주택 관련 일을 많이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거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공간에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서점에서 일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했고요. 하는 김에 전시 공간이 남아서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다시 전시해 봤어요. 그것을 보고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웃음).



진행하셨던 전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경 : ‘친애하는 남의 집’ 전시는 잃어버린 주거권을 찾기 위해 기획된 참여형 전시예요. 전시 제목을 ‘친애하는 남의 집’이라고 정한 이유는 하재영 작가의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라는 책 제목에서 따온 것인데, 저자가 자신이 살아온 (개인의) 집의 역사를 써 놓은 책이에요. 집에서 시작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었어요. ‘나의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라고

한 이유는 남의 집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내가 몇 년간 살아야 할 집이라서 애정을 쏟고 해결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싶었어요. 그때 팀원 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제목이 그걸로 결정되었어요.

전시는 참여형 전시와 레퍼런스 전시, 그리고 네트워킹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참여형 전시에서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완성시키며 자신의 주거 경험을 공유했고, 레퍼런스 전시에서는 저희 팀원들이 주거권 스테디를 통해 공부한 내용들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했어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시간을 운영해서 관람객분들과 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어요. 이야기의 주제는 ‘주거권 없이 살아도 괜찮은가?’였습니다. 저희 전시를 방문해 주신 관람객분들은 ‘주거권과 주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했다, 그것이 갈급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시회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하경 : 전시회를 하고 나서 아쉬웠던 건 문제의식만 놓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떠한 해결책도 없고 딱히 저희가 뭔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슬픈 이야기만 놓고 간 느낌이라, 다음에는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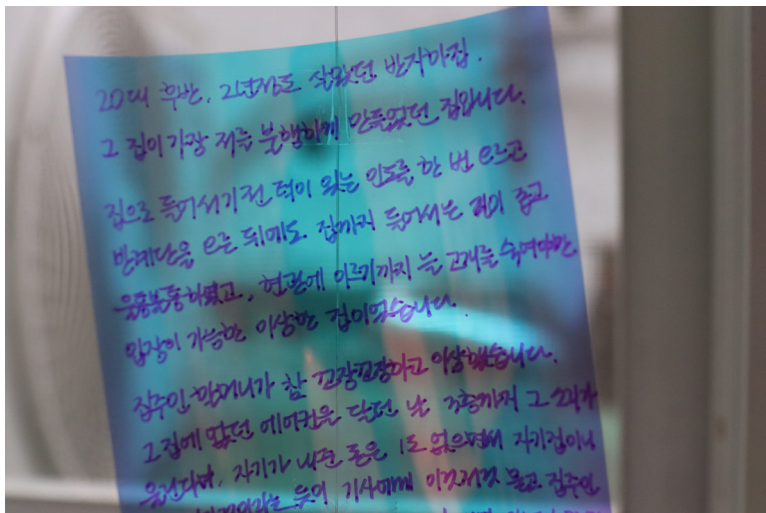
소리 : 아무래도 주거권이라는 주제 자체가 청년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큰 주제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요. 혹시 주거권이라는 주제 안에서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고민하신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경 : 주거나 부동산은 단위가 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공유되는 것 같아요.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움직이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나, 더 나은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거와 부동산은 유의미한 행동을 만들어 가기가 막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될까?’ 이런 의심부터 들어서요. 무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들어요.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서 소셜 믹스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아 : 무력감을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경 : 네. 대선 후보들의 청년 주거 정책을 모아서 봤는데, 재미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대부분 정책들이 현재 있던 것을 조금씩 가공해서 보여주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요. 기존 정책을 이름만 새롭게 해서 내놓는 경우도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기본 주택을 이야기하면서 3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댓글에 ‘30년 동안 거지로 살라는 말이나’ 이런 식의 반응이 달리더라고요. 그런 반응의 이면에는 미래에 자기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부동산을 언젠가 소유해서 자산을 뺄튀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기본 분양가를 통해 청년이 나머지를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던데, 투자와 투기에서 생긴 이득을 가져가게 하겠다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 : 말씀하신 대로 주거권이라는 주제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청년들이 모여서 주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바꿀 수 없다’의 반복이 아닌가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더라도 조금 더 사람을 모으든지, 소셜 미디어로 보여주는 것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며 반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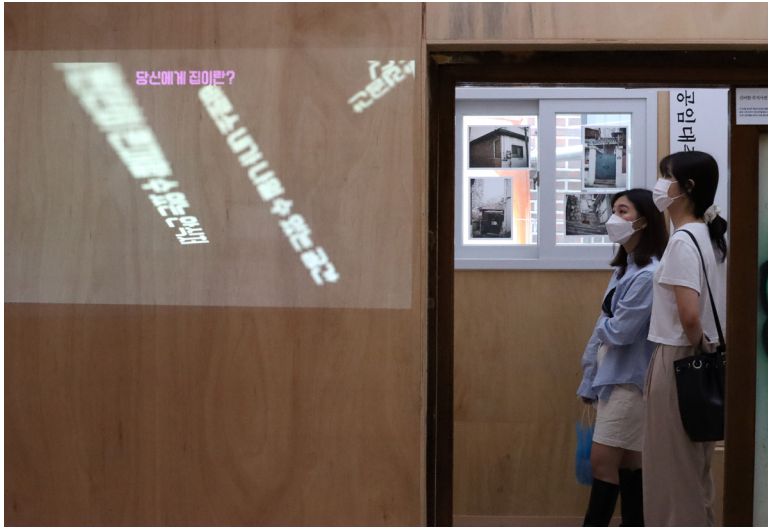


주거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나머지들을 만나다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요?

인현 : 전시를 할 때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특히 재밌었던 건 유럽 같은 주거 복지를 일찍 고민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였어요. 또 다른 삶에 대한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상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거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요. 외국 사례를 보니까 특히 유럽 쪽은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제도가 100년 이상 되어서, 그 역사가 발전해 온 과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정착된 제도가 청년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건지 그 범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청년 주택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현 : 우선 저희 회사에서 바라는 바는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32세대인데, 가운데 공유 공간이 있어요. 공유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활동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좋겠다는 게 목표인데, 일단 청년들이 너무 바빠서 주거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자신들이 소속된 집단이 어디든 있고, 선호나 취향, 지향하는 바가

잘 맞는 집단에 이미 속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실 집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모인 거잖아요. 특히 주택 안에 공유 공간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외부에서도 충분히 모임 공간을 대여해서 사용할 기회가 많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사회주택에 입주할 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요. 입주할 때 자기소개서를 요청해서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지향하는 바를 미리 알고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소리 : 한살림이라는 공간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공동체 주택을 만들어서, 청년 조합원들이 거주하고 1층에서는 매장을 운영하고요. 2층 정도에는 밥을 나누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어요.

인현 : 요새 LH나 정부의 기존 방침도 점점 바뀌고 있어요. 사회주택 제도가 5~6년 정도 되었는데 매년 정책이 바뀌어요. 가장 최근에 나오는 게 테마를 가진 주택을 만들라는 것인데요. 협동조합들이 주택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원래는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 미술 교육 관련해서 활동하던 작은 회사였는데, 창작자나 예술가들이 활동을 펼칠 공간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거든요. 운영하는 주택들도 예술가들을 위한 주택을 많이 만들고요.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하면 유의미한 무언가를 만드는 데에 좋은 환경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진아 : 사실 미담에서 주거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좌담회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친구를 초청해서 서로 주거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문제의식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하경 : 사실 우리끼리 무언가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포럼의 형식이 갖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겠지만요. 부스를 열거나, 유튜브를 해보거나, 하는 등의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구현 못해 본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슬기 : 우리가 함께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인현 : 집만 파서는 못 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도시나 지역에서 집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전시를 준비하면서 봤던 책에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1억에서 3억 사이에 있는 투룸 빌라는 평형이 너무 획일적이고, 어느 지역 어느 빌라를 가더라도 비슷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정형화된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외장재로 많이 쓰이는 빨간 벽돌의 유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궁금해요. 지역이나 도시 안에서 집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서 관련한 활동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점에서 출사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서울의 재개발 풍경을 사진 찍어 기록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의 작업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집의 유행하는 모습이나 건물의 양식 같은 것도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신축 빌라들이 왜 그렇게 (획일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고 나니까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것들을 바꾸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공부해 나가면서, 밖에서 바라보는 집의 풍경들을 알아보는 활동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집에 관한 아카이빙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세대나 지역에서 같은 집을 공유한 사람들을 모아볼 수도 있겠죠? 같은 공간 혹은 비슷한 공간에 살았다면 공유하는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현 : 집이 사적인 공간이고 거리는 개방된 공간이라면, 중간지대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삶에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하면서 관련된 활동을 만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미국에서 주차장 칸 하나를 빌려서 한 달 동안 월 주차 요금을 낸 다음에 거기서 가드닝을 하더라고요.

가드닝을 너무 하고 싶지만, 대도시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주차장 한 칸에 흙을 쌓아서 식물을 키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간을 쟁취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요새는 NFT에 관심이 많은데, 부동산도 다 쪼개서 소유하는 식의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의 땅과 하나의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시대가 없어지는 날도 올 수 있고요. SF 같은 이야기지만 상상해서 이야기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마주갈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주거는 정말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새삼 더 크게 다가왔다. 당장 나의 집에 대하여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슬픈 일, 어쩔 수 없는 일로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정말 와닿았다. 청년들이 주거권을 주장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응답할까? 아마 더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집을 구하라고 하거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과 함께 그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역경이니 참으라고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당연한 응답이다. 청년들이 주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집’이 없어서가 아니다. 단지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어떤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 나의 마을에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들이 드러나지 않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경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스스로 혼자만의 공간에 가뒤퍼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을 지워버렸을 수도 있다. 잘 보이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으로 영영 보내 버린 것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꺼내는 ‘왜?’라는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힘을 가질 수 있다. 나마주갈의 전시가 그렇고 미담의 답소가 그렇다. 개인의 고민에서 출발했지만 우리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결된 우리의 문제가 ‘나중’의 문제, 혹은 ‘개인’의 탓으로 치부되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집이란

#보증금 #월세 #책상 #매트리스 #관리비 #원룸 #이사 #계약
#형태 #매물

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근처에 살고 있다. 빌라이고, 방은 원룸이다. 현관문을 열면 방이 모두 보이는 구조고, 매트리스를 가릴 수 있는 책장과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옷장이 벽에 붙어있다. 4인 상을 사다 놓았는데, 이렇게 놓아도 사람 두 명 정도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 이전 집은 너무 좁아서 침대랑 1인용 책상을 놓으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때는 집에서 침대 위에 눕거나 책상에 앉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 지금은 유튜브를 보면서 요가도 할 수 있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집은 전세이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20살에 본가에서 나와 살기 시작한 이후로 첫 전셋집을 구했다. 8천만 원에 관리비 9만 원으로 계약했고, 8천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어서 은행 대출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을 구할 수 있었다. 은행에서 100%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서 실제로 보증금을 내줄 사람이 없다면 집을 계약할 수 없는 구조다. 6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나머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빌렸다.

대출을 갚기 위해 매달 8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다. 진짜

운이 좋았던 것은 이 대출금 외에 보증금을 부모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만약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반전세 형태를 고려하거나 반지하 구조에 살았어야 했다. 아니면 또다시 늑거나 앉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서울에 살다 보면 월급의 큰 부분을 보증금에 대한 이자나 월세, 관리비로 지출한다. 당시에는 저축해 놓은 돈도 크지 않았고, 벌이도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사실 서울에서 집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전 방은 월세였는데, 보증금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씩 내고 살았다. 요즘에는 월세 지원 제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보통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다른 조건들이 있으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 사는 내 집에 만족한다. 사실 교통은 지금까지 살던 곳 중에 가장 안 좋다. 역에서 작은 언덕을 넘어 20분 정도 걸어야 집이 있다. 교통편은 좋지 않지만,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마음에 들고, 또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서 좋다. 이전에 살았던 집은 학교 앞이었는데, 한 가구였던 집에 문을 하나 터서 만들었던 방이라고 했다. 한쪽 벽이 방문에다가 벽지를 붙인 형태인 곳에 살거나, 기숙사에서, 고시원에서, 근린생활시설에서 그렇게 살았다. 이전에는 집주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사는 집이 굉장히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만족하는 편이지만 앞으로도 살고 싶은 집을 생각해 본다면 밥 먹는 공간과 침대가 한 방에 있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

또, 이사를 좀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방을 계약하려면 전세라고 하더라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2년이 다 되어 가면 마음이 불안하다. 지금 전세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다음 달이면 이사 생각을 해야 한다. 이사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잘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하고, 그 매물이 가진 정보들도 다 확인을 해야 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도 많아서 공인중개사를 있는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살던 곳을 재계약하고 싶지만, 지금 집주인으로서도 법정 한도 내에서 전세 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최대한 비용을 많이 올리려고 할 테니, 어려울 것이다. 이사를 그만하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을 생각하면, 나의 방이라기보다 누군가의 방을 잠깐 빌려 산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왜 서울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살지 않거나, 집을 가지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서울에 사는 진짜 많은 사람이 잠시 버틸 곳 혹은 내가 언젠가는 떠나고 더 좋은 집을 살 것이라는 정도로 주거를 인식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 방이 생길 수 있을까, 주거가 안정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한다. 이런 불안함이 해소되려면, 나의 상황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 더 큰 것들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주거에 대해 말하기 ‘소리’편

주거권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서울에서 어떻게 청년이 집을 구해서 살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 주거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범위의 문제인 것 같아서 뭐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이다. 일단 서울에 올라오는 과정부터가 어려운 지방에서 살던 청년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구하게 되는데 전세라고 하면 직장인들에게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지원 정책이 많다. 그런데 중기청 대출에 맞춰서 4~5평 원룸들도 전세금액을 올려버린다. 방 한 칸짜리 원룸인데도,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예전에 살던 방 하나가 거실 하나 1.5평인데, 그 공간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65만 원이더라. 오피스텔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관리비도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서울에 기반이 없는 청년이면 애초에 시작부터가 서울에 살던 청년들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한 달에 월급이 많아 봤자, 사회 초년생이 500씩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200 초반으로 받는다고 치면 거기서 월세 나가고 정말 기본적인 생활에 써야만 하는 교통비, 식비 이런 거 다 빼면 저축할 돈도 없다. 그래서 생긴 것이 사회주택인데, 이것조차도 지금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나라에서 최근에 청년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졌다. 민관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합정 같은 ‘역세권 청년 주택’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 것도 막상 까놓고 보면 굉장히 좁은 원룸이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긴 해도 엄청 좁다. 게다가 대기자도 엄청 많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하지만 진짜로 사서 해야 하는 건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고, 그래야 한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왜 아파트는 엄청 많이 짓는데 내가 들어갈 집은 없는가 하는 고민이 든다. 대학을 춘천에서 나왔는데, 여러 원룸들을 옮겨 다녔다. 그러던 중에 월세를 한두 번 정도 늦게 보낸 적이 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뒤늦게 월세를 보내면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집주인은 자기 건물이 하도 많아서 무슨 건물인지도 잘 몰랐다. 자기는 춘천에 건물이 하도 많아서 월세를 한두 달 밀리긴 별로 관심이 없다고.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인데, 대한민국은 정말 건물주만 잘 사는 부동산 천국이라고 생각했다.

땅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는 것인데 왜 원래 있던 땅을 돈을 내고 가지고, 매월 돈을 더 벌고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된다. 여전히 땅을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월세를 더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도 하던데,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

주거에 대해 말하기 ‘슬기’편

#엄마 #과제 #삶의터전

주거는 우리 엄마의 평생 과제이자 고민이다. 어려서부터 엄마는 다음 이사 갈 집을 찾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당장 우리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없으면 어찌지 매일 걱정을 했다. 나는 그런 과제와 고민을 함께 짊어지기보다는 평생 숙제로 주거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엄마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다고 안도할 수밖에 없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독립하는 삶을 꿈꾸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고민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자리 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쉽사리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의 원인이 주거이기도 하다. 생활의 필요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서 자리 잡고 싶고,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꾸려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인다. 미안함과 안도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떠오른다.

주거에 대해 말하기 '진아'편

#집값 #주거 #보증금

너무 높은 집값에 비해 형편없는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학교 때문에 자취를 해야 해서 서울에 있는

자취방을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 집들이 특히나 더 비싸다. 보증금도 보증금이지만 한 달에 평균 50만 원 이상씩 내야 하는 것이 학생으로서 정말 큰 부담이 되고, 학업생활, 대외활동, 자격증 준비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집값 50만 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다면 포기해야 할 일이다.

성적도 마찬가지다. 좋은 성적에는 노력이나 재능이 필요하겠지만, 경제적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친다. 집값 부담이 높아질수록 좋은 성적을 받기도 더 힘들어진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부담스러운 집값을 어떻게든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주거 환경은 형편없다. 책상하고 침대만 들어가면 끝나는 아주 좁은 면적에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어려운 집이 대다수다.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벌레도 많고 안전하지조차 않은 이런 집들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서 꾸역꾸역 50만 원을 만들어낸 결과가 이런 열악한 집이라는 것에 무기력감을 많이 느낀다.

이 와중에도 전셋집은 매물이 없다. 부모님 수준에서도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나, 실제로 그나마 조금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신축 오피스텔은 2억이 넘는다. 현금으로 최소 2억은 있어야 사람답게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한다. 국가에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받아주는 곳도 사실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인가 싶어 회의감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싶어서, 서글플 때가 많다.

주거에 대해 말하기 '하경'편

청년이 된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돈을 벌어야 할 자유 정도밖에 없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괜찮은 집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자유가 생겼는데, 제약을 받는 느낌이 강하다. 우리에게겐 실패할 자유가 조금이라도 허락되지 않는다.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허무함과 허망함이다. 최근 청년 자살률이 높다. 이 원인이 실패할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사회가 이야기하는 성공은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사실 우리는 적당히 성공하더라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도 없다. 번듯한 집에서 사는 것조차 힘들다. 그러면 적어도 실패할 자유 정도는 보장되었으면 한다. 청년들이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지원하는 것, 실제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실패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에서 살아갈 권리,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장되는 것을 상상해 본다.

주거에 대해 말하기 '진진'편

2.

두려움과 걱정 담소 모임

어느 순간 내가 두려운 이유가 개인의 책임이기
보다는 사회적 맥락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한 발짝을 내딛기가 두려운 것에는
사회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나의 두려움에 대하여

진아 : 저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두려운 이유가 개인의 책임이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한 발짝을 내딛기가 두려운 것에는 사회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대중적 노년기의 ‘불안’은 두 개의 기본 축을 중심으로
번식한다. 폐휴지를 주우며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한
노년과, 치매에 걸린 채 요양 시설의 고립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노년.”

-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¹

진아 : 이 구절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노후대비는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인터뷰에서의 불안이 저의 두려움과도 연결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늘 미래에 어떻게 되지

1 두려움에는 맥락이 있다, 옥희살롱, <http://okeesalon.org/archives/3096>



않으려면 지금을 희생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아왔거든요. 스스로를 옥죄는 두려움의 원인은 대부분 ‘미래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돌봄을 위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활성화되었잖아요. 거기서 중요시하는 것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 개념인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뷰에서는 홀리스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돌봄 정책들에는 홀리스의 삶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 두 채를 못 갖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내 집 한 채 갖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적어도 개인의 주거 안정은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력해서 계층 이동을 하면 되잖아?’가 당연한 논리가 되는데,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왜 저런 비현실적인 논리에 우리가 늘 가난을 숨기고, 노력만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해요. 근본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당장 내 집 한 채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인생의 목표가 ‘집 한 채 갖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기사에서 본 내용, 그리고 평소에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 오늘만큼은 나의 두려움에 대해 ‘사회 탓’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소 모임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어요.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두려움에 대한 사회적 맥락

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일상의 불안함

무사히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슬기 : 함께 읽은 인터뷰 글에서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고물과 폐휴지를 줍는 삶을 왜 두려워하는가?’이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늙으면? 잘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어요.

진아 : 사실 결혼과 출산을 이야기할 때에도, 아직 생각이 없다고 하면 ‘다 늙어서 어떻게 하려고 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배우자와 자식이 없으면 노후에 잘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건가? 그러면 결혼과 출산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좋은 삶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리 : 그런 맥락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이라고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혼자 살 때는 안전망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의 생활 지원도 다 정상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진아 :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고립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죠. 그런데 당장 코로나 위기가 아니더라도 노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연결이 가능할까요?

예림 : 우리가 기존 논리에 휘말려서 똑같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정해진 대로 살아야 하나?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결혼 안 하고 친한 사람들 모여 살고 그런 미래를 상상해요. 그런 다양한 삶의 방식도 존중받을 수 있는 공적 안전망이 마련되면 좋겠고요.

솔기 :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아직 노인들을 위한 안전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서구의 실버타운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보니까, 방은 따로 쓰더라도 함께 사는 형태가 가능하더라고요. 공유 주방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진입 장벽도 높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공공 영역으로 개방되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홈리스도 함께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진아 :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좋은 직업을 가져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 왔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삶에서 좋은 직업,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일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치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도 하죠.

소리 : 확실히 일자리를 구할 때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연금과 평생직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연금을 받으면 늙어서도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고, 평생직장이 되면 안정적인 노동 환경이 지속해서 보장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정년퇴직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급한 일이 생겨도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게 엄청 압박되더라고요. 이러다 갑자기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 집이 많이 힘들어지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최근에는 이렇게 두려움에 살 바에야, 가족에게 짐이 될 바에야 죽음을 일찍 선택한다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표현이 아닌 ‘자기 선택권, 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무서웠어요.

진아 :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폭력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맥락을 가리고 자신의 책임을 부각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상품성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 : 취업 준비 단계에서도 그렇지만, 취업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도 그래요. 내가 회사에 쓸모없는 사람이면 어떡하나 고민이 많이 들어요. 일 자체도 주어진 것을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주도성이 사라지죠. 그러면 영혼 없이 그냥 일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정한 것을 그대로 잘 수행하면 쓸모있는 사람이 되죠. 굳이 의견을 내기보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휴가 다녀오니까 저 없이도 잘 돌아가고, 그런 걸 보면 나란 존재가 특별하진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일은 없긴 하지만 회사의 구조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그래서 조바심도 나는 것 같아요.

예림 : 사실 회사가 운영될 때 누군가가 잠시 쉴 때 대체로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없어도 된다는 것에 불안함이 앞선다는 것은 결국 그 정도로 나의 고용 자체가 불안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아 : 고용이 불안정한 측면에서 겪는 두려움은 여성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기회가 잘 돌아오지 않는대거나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의 두려움도 있고요.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여성 청년들에게 선택지로 주어지는 고정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여성스러운 직업’들이요. 소위 ‘1등 신붓감’이 될 수 있는 직업들을 보면, 갑갑하죠. 왜 저렇게 종속된 존재로 여성들을 규정할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반발감이 들어요. 거명되는 직업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청년이 취업 준비할 때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성 역할을 구분해서 직업을 강요하는 건 정말 폭력적인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에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채식주의자 뱀파이어>라는 책에서 본 내용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여성들은 모성애를 강요받으면서, 재생산 노동만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재생산 능력까지 떨어진 여성 노인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돌봄’이고 그래서 돌봄 노동을 그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집에서 놀 거, 이런 일이라도 하면 좋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그걸 함으로써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여성의 고정된 역할을 그대로 체화하면서, 그것만큼은 내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 나이 들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당연하게 여성 노인들에게 돌봄 노동을 다 전가하는 사회적 맥락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서울이어야 할까?

소리 : 저는 일자리를 구하면서 서울에 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어요. 비수도권에 일자리가 없다는 두려움에 서울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자리가 많아 보이니까요. 확실히 상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전’이 있다기보다 도태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진아 : 저도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삶을 꿈꾼 적이 있었어요.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유로운 부분도 좋지요. 동네가 주는 정감도 있지만, 아파트도 저렴하고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갈증도 있어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막상 서울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도태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오히려 커뮤니티가 서울에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웃음).

소리 : 아무래도 다시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쌓아온 것들을 끌어낸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선 다시 도망쳐 오더라도 먼저 이주 시도를 해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웃음).

나의 두려움에 대한 사회적 맥락

② 여성으로서의 두려움, 생명과 존재의 위협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림 : 최근에 20대 여성들이 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살이든 타살이든. 왜 죽을까? 그런 것들도 두려워요. 사람을 만나기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요.

슬기 : 그런데 점점 여성에 대한 보호가 ‘공정’이라는 문제 제기로 인해 많이 악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는 아직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최근에 1인 가구 여성 안심 물품 세트 지원을 받았는데요. 여성 청년 대상으로 연초에 지급을 했는데 남성들이 차별이라고 반발해서, 성별 관계없이 물품이 지급되었어요. 이후에 조금 단출해졌다고 해야 하나? 예전에는 보호 카메라도 있고, 집에 갈 때 귀갓길 동행 서비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CCTV가 다인 것 같아요.

소리 : 제가 듣기 싫은 말 중의 하나가 ‘여성이 살기 위험한 세상이니까’라는 거예요. 그게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흉흉하다면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지 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의아해요.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어요. 지금은 정작 여성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 여러 범죄들이 별로 대가도 잘 안 치르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걸 보다 보니 ‘세상이 흉흉해’ 라는 말을 안 쓰도록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슬기 : 그런 말을 해 놓고 뒤에 따라오는 말이 없으니까 답답한 것도

있죠. 사회를 그렇게 규정해놓고 뒤에 따라오는 말이 ‘그러니까 조심해’라니.

예림 : 이미 충분히 두려움을 겪고 있으니, 제일 조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예요.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데이트 폭력, 안전 이별, 가스라이팅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된 단어들이죠. ‘왜 우리가 이런 위험을 겪어야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진아 :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여러 대안들이 여성에게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대안들이다 보니 더 어려워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부당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리 : 얼마 전에 발생한 노래방 도우미 살인사건이 생각났는데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망 신고 같은 것들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직업 자체가 음지화되어 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던 거예요. 직업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근절부터가 아니라 안전망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림 : 성 노동자의 이야기도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선택의 과정에서 사회적 맥락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낙인찍히는 두려움이 커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음지화되는 것도 있고 음지화되다 보니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하고요. 보호받기도 어렵죠.

진아 : 최근에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 노동자 당사자가 아닌 주변 술집 상권 종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죠. 성 노동자의 삶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사회가 개인의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일들을 묵인하고 있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여성의 삶을 착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조를 바꿔야죠.

예림 : 이번에 지역 정책으로 영등포역 앞에 성매매 집결지를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들은 더 구석지고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나마 집결지가 있어서 그들의 삶과 연결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매일 단속을 하지만 그래도 더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존재조차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두려움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진아 :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한 나의 선택이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낼 텐데, 한 번 극복하고 나면 무너지는 것이 또 당연해지는 것도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납득이 되어버리니까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을

드러내고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이 가진 두려움이 개인의 책임에 가뉘지는 순간, 우리는 한없이 두려워지고 고립된다. 우리의 두려움의 사회적 맥락을 마주하고 공공의 책임을 주장할 때 그래도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와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원하는 이유도 나의 두려움을 공유할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어쨌든 살아야 하기에, 주거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다. 살아야 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다는 기대조차 없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무사히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정리 : 진아

나는 무사히
OO할 수 있을까?



무사히 탈서울 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탈서울 하고 싶은 걸까?)

소리

미담 담소 모임에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을 때는 두 번을 고민 않고 말이 술술 나왔던 것 같은데, 막상 방에 돌아와 글로 써보려니 잘 써지지 않는다. 두려움, 이라고 적자마자 너무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그런 걸까?

무사히 00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을 봤을 때 가장 맨 처음 떠오른 건 장혜영 의원이 만든 <어른이 되면>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그 영화에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안도감과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던 것 같다.

뒤이어 ‘나는 무사히 탈서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따라왔다. 가장 빈번하게 꼬박꼬박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 중에 하나다. 인스타그램으로 지인들 소식을 듣다 보면 경력을 쌓다가 2, 3년 차에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꽤 있다. 서울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그렇게 많다고 생각될수록 더더욱 사람들은 몰린다. 일단 서울은 가봐야 하지 않겠어?라는 막연한 동경 반 두려움 반으로 서울에 온 이후로, 나는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받는다. 이상하게도 다른 도시에 정착하는 나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서울에서의 삶이 ‘노력’해서 남아있을 만큼 나를 충족시켜주냐고 묻는다면 아닌 것 같다. 서울에서 나는 하나의 방에서 공간 분리 없이 생활한다. 그래도 이전 방들보다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방에는 작은 보호막이 생겼다. 원룸의 문과 침대 사이에 작은 책장을 세울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생겼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문을 열면 누구든 내 모든 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람은 내 방문이 열린 틈을 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을 구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노출은 수많은 두려움과 연관된다. 안전과 관련된 두려움,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뺏긴다는 두려움.

원룸은 진짜 원룸이라 신발장 근처에 눕고 화장실 앞에서 밥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재택업무와 휴식이 분리되지 않아 심리적으로 과분한 압박감을 받게 되기도 한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카페에 가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더더욱!)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고향의 집에 내려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방에 누워있다가 거실에 나와 눕는다. 그 잠깐의 이동이 내게 주는 평화가 있다.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동안 머릿속이 조금 정돈되곤 한다. 그 짧은 분리의 영향력은 크다. 누워있어도 몸을 데굴데굴 굴러봐도 매 순간 눈에 신발장이나 현관문이 들어오지 않는다. 누군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일 일이 없어서 안심된다. 밥을 먹든 책상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빨래가 마르길 기다리다가 성급히 옷가지를 개지 않아도 된다. 이런 기분들이 복합적으로 엉켜 내게 ‘서울’로 다가온다.

서울의 삶은 곧잘 팍팍하고 펍펍해져서 잠깐 어딘가로 도피하는 식의 여행을 가끔 한다. (그게 그 도시를 착취하는 일은 아닐까?) 생활비도 많이 들어, 방은 작아, 교통체증에, 어딜 가든 사람이 많다, 초록이 적다, 파랑이 적다. 그런데 끊임없는 단점으로 서울에서의 삶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나는 왜 서울에 사는 걸까? 왜 남아 있는 걸까? 한편으로 내 속에서 양면적인 감정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버티고 있는 건 나다.’ 누가 남아 있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서울은 수도고, 문화 예술이 집중되어 압도적으로 풍성하고, 없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과잉되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찾으면서 서울에 있어야 뉘쳐지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무사히 탈서울 할 수 있을까? 아니 탈서울 하고 싶긴 한 걸까?

무사히 OO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적다 보니 조금 과장한 건가 싶기도 한데, 동시에 과장해서 축소된 두려움도 있다 싶어 그냥 놔두었다. 실루엣 때문에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곤 한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문득 불을 끄고 옷을 갈아입어 본다거나, 환기를 시키는 시간 말고는 창문을 꼭 잠그고 자라고 혼났다가나 배달시켜도 절대 대면으로 받지 않는다가나 뭐 그런 두려움들은 잠시 넘어갔다. 이런 두려움은 꼭 서울이라서, 원룸이라서만 갖게 되는 두려움은 아닐 테니까. 나는 무사히 이런 두려움들을 없애나가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슬기's comment

“ 확실히 서울에서의 삶은 너무 빠르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탈서울’은 저의 화두이기도 한데요.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곳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주해서 살아봐요! 정말 재미있을 듯. ”

무사히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을까

슬기

싹 틔우기



다육이를 키우고 있다. 아니, 다육이를 키웠다가 죽이고 또 새로 들였다는 표현이 맞겠다. 처음 다육이를 집으로 들여온 건 내 결혼식이 끝난 직후다. '지속가능한' 결혼식을 위해 뿌리가 있는 다육이를 부케로 만들었다. 화분과 흙을 고르고 꽃집에서 일러준 대로 다육이를 심었다. 사실 내 집에 살아있는 식물을 들여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야 하는, 별이 잘 들지 않는, 너무 좁기도 한 원룸 혹은 세어하우스를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내 집'이라고 생각한 곳에 입주하게 되었을 때 말이다. 항상 옮겨 다녀야 하는 사정 때문에 살아있는 무언가를 살피고 돌보는 것은 내 한 몸으로 족했다.



우리 집에 온 다육이는 내내 비실비실하더니 결국 죽고 말았다. 죽은 다육이를 정리하려고 잎을 들었더니 뿌리까지 덜렁 들리는 게, 애초에 화분에 뿌리도 단단히 내리지 못한 모양이다. 마치 서울살이에 적응하기 힘들어 이곳저곳 직장을 옮기며 코앞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사는 내 모습 같았다. 아빠의 코사지로 활용했던 다육이는 대충 시골의 할머니 집 화단에 심어 두고 관심을 안 뒀더니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잘 산다는데. 서울은 아무래도 아스팔트가 너무 많은 모양이다.

올해 초 겨울, 엄마 집에 놀러 갔을 때 엄마는 한창 다육이에 빠져 있었고 내가 오니 신이 나서 이것저것 자랑을 하더니 급기야 다육이 농장에 나를 데리고 갔다. 이미 다육이를 죽인 경험이 있는 나는 한사코 거부했지만 결국 서울로 올라오는 내

가방에는 다육이 화분 3개가 추가되었다. 통통하고 단단하던 다육이는 우리 집에서 여름을 보내더니 납작하고 말랑해졌다. 물이 부족하거나 혹은 과습이거나, 통풍이 부족하다는 뜻일 것이다. 과습으로 죽는 것이 무서워 내내 집안에만 모셔뒀던 것이 화근일까? 엄마의 조언대로 베란다에 걸쳐 두었더니 햇빛도 받고 바람도 쐬고 가끔 소나기도 맞으며 다시 통통하고 단단해졌다.

고개를 돌려봐도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에서 내가 몸 누일 땅 한 평 없다는 사실이 나를 이 도시에 더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듯하다. 나에게 아스팔트를 뚫고 내려갈 힘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든 서울에서 아등바등 살아내려고 했을 텐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몸도 마음도 나약해진 나에겐 어떠한 선택도 꿈꿀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다육이처럼 납작 엎드리고 말랑해져서 햇빛과 바람을 기다리는 수밖에.

진진's comment

“ 저는 슬기 님 글을 읽을 때마다. 자주 감탄하는 편인데요. 글을 읽으면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아스팔트 위에 나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골 혹은 고향...? 집...? 이라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것들이 도시에서는 하나의 결핍이 되고, 그걸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시장에서는 그 결핍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도 하죠. 사실 그 결핍은 아주 보편적인 거여서,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획득하기 쉽다는 점도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다육이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요! ”

나는 무사히 독립할 수 있을까

진진

주거, 삶, 자체적인 소득, 자립과 같은 키워드들이 나를 옥죄어 온다. 평범하게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내게 앞선 키워드들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시기이다. 요즘은 그만큼 20대에게 가혹한 시기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결핍되었다고 생각하는 전자기기들을(노트북, 핸드폰) 사기 위해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특히, 핸드폰은 대략 4년 정도 사용했었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되었고 노트북 또한, 거의 수명이 다하기 직전이었다. 알바를 다닌 곳은 외국인학교였다. 알바를 가면서 좋았던 점은 적어도, 이곳엔 20대 중 동년배가 꽤나 있었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독립하기 위해 상경한 20대 청년들이 있었다.

연기를 전공해서 연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연기자가 되고 싶은 이도 있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부동산을 메인 비즈니스로 하다가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중에는 취업을 준비하다가 취직을 하고 축하받으면서 알바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나처럼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돈을 벌기 위해 온 대학생도 있었다. 심지어 이 일은 새벽같이 일어나 오후 4시쯤에 퇴근하는 게 업무 루틴이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원에 가는 이들도 있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자극을 받은 시기이기도 하다. 어른들은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 높이를 낮춰도 살아가기 힘든 게 현실이다.

살아가면서 박탈감을 자주 느꼈던 순간은 대학에 다니면서였다. 좋은 교육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장비나 옷들을 대부분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3수, 4수를 지원받았다. 그 친구들도 개인적으로 노력했겠지만, 가정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런 교육 환경에서 원활히 교육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설한 SeTA(Social entrepreneurship Team Academy)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들도 대부분 그런 느낌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소셜벤처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주로 세상에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가 포착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움직이면서 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자주 연출되었고 콘텐츠, 혹은 제품,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본이 필요했다. 또, 학교를 오가거나 수업을 듣기 위해 필요한 각종 소모품 그리고 교통비가 필요했고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들도 있었다.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한국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생활비 대출을 이용했다. 대학생 생활 중에 한 달에 오천 원쯤 되는 이자를 내는 것과, 원금은 미래의 나의

생활력으로 어떻게 되겠지 싶은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결심하게 되었다. 경영학적인 용어로는 이를 레버리지라고 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두 배로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했다.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들과 발맞춰 나갈 비용들과 장비들로 내 주변을 구성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그들과 어울릴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거나 낙오될 거라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기업 내가 원하는 직무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돈이 필요했고, 성균관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든 경험들로 나는 내년과 내 후년을 설계하고 있다.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는 만큼 지금은 경제적인 자유를 위한 레버리지에 종속되어있다.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노력을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나를 브랜딩하고 콘텐츠화 하는 것도 시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브런치에 글도 쓰고 있고, 코딩을 배우면서 포트폴리오를 쌓아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는 내가 살아온 세상과 내가 보아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생산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나만의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부족한 것은 여전히 있다.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기본적인 소득상황이 개선되면서, 이 상황은 차츰 개선될 테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또, 알바를 전전해야 할까? 나는 또, 학원에 다니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할까? 와 같은 불안에 시달리며, 내가 원하는 취업을 위한 학원에 등록했다. 나는 독립할 수 있을까?

 진아's comment

“ 20대가 되면서 독립에 대한 압박을 느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독립하고 싶어도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겁이 날 때가 많아요. 사실 이런 고민이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진님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사회가 정한 규칙에 맞추어 스스로를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속박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독립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역할, 진로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진진님을 응원합니다:) ”

나는 무사히 적응할 수 있을까

진아

과거 내 안에는 분노 버튼이 존재했다. 버튼이 눌리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튀어 나가게 되는, 패기는 넘치지만 어쩌면 무모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나의 분노는 주로 나를 규정하는 것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어린’, ‘여성’이라는 수식어는 늘 나의 행동과 권리를 제한했고,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생각이 기성세대에 의해 억압받았고, 불편과 희생은 어린 시절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들이 규정하는 ‘나’는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어린’, ‘여성’들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나에게 최근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새로 시작한 일(활동)을 시작하면서 분노의 버튼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문제가 보여도 좋은 말만 늘어놓고 싶은 충동에 빠질 때가 많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냉소와 함께 내가 뭔가를 할 수도 없을 것 같다는 무기력이 함께 찾아왔다. 이런 상태에 빠진 나에게 가장 달콤한 위로는 점차 적응될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도 큰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 위로에 안도하기도 잠시, 두려움이 생겼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과거 나를 분노하고 움직이게 했던 구조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 내 삶이 더 나아질까? 내가

일을 통해 성취와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거침없이 뛰어들고, 함께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던 나의 20대는 이제 영영 꺼내 보면 기분 좋은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걸까.

어느 조직에서나 우리는 쉽게 타협한다. 마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조직이 굴러 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부당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 문제가 보여 입이 근질거릴 때 무모한 변화를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불편한 존재가 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인데, 하지 않으려고, 안주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나는 두렵다. 그 두려움은 언제나 나 자신을 잡아먹는다. 자신 없어 주저하는 모습, 한 발자국 나아가길 꺼리는 모습이 싫어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나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나는 무사히 적응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적응은 안주하는 적응이 아닌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적응이다. 나와 소중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문제라고 인식되는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에게 남은 과제는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을 찾기’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대한 목표가 있지는 않다. 하루아침에 사회를 아주 좋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는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아주 좋은 사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다. 너무 많은 고민이 뒤엉켜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사회가 늘 당연하게 하는 이야기 속에 숨은

부당함을 드러내는 불편한 존재이고 싶다. 어리기 때문에 기성세대에 의해서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 가난하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을 수도 있다는 말. 우리의 삶의 부당함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사회와 싸워 이기고 싶다. 그래서 모두가 당당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나의 공간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들에 관한 거다. 익숙함을 낯설게 바라보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조이고 있던 너무나도 폭력적인 사회 구조. 사람들과 함께 그 구조의 모순을 드러내고 변화를 상상하고 실현해내고 싶다. 그게 나의 활동의 동기이자 삶의 활력이다. 나와 우리의 고민을 기록하면서 무사히, 현재를 잘 살아내고 싶다.



소리's comment

“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보다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지길. 그렇게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 순간이 두려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둘러싼 주변과 구조는 변화한 것 없이 그대로인데 나만 변한 걸까 싶어요. 진아 님의 글을 읽는 내내 공감하였습니다. 미담이 불편한 소리를 마구 꺼내놓고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 불편한 예리함과 낯섦이 무디지 않고 우리의 강점이 되기를 바라요! ”

3.

일과 원동력 담소 모임

사회가 말하는 수많은 ‘일’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가 꿈꾸는 일, 지금 하는 일,
일에서 하는 고민 등 그 조각조각을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일에 대하여



나의 일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일한다. 많은 시간을 들이는 만큼 우리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임금노동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은 돈과 떼려야 뗄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그 수단이기만 한 건 아닐 것이다. 일이란 뭘까? 당신에게 일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의 어디쯤 있을까? ‘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비슷하면서도 제각기 다른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일잘러’, ‘직장에서 00 하는 법’ 등 일을 잘하고 만족스럽게 하기

위한 자기계발서와 강의가 널린 세상이라, 개인이 일하며 브랜딩도 해야 하고 스토리텔러도 되어야 하고 경력을 쌓아 커리어 업도 해야 하고 돈 모아서 집도 마련해야 한다. 사회가 말하는 수많은 ‘일’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가 꿈꾸는 일, 지금 하는 일, 일에서 하는 고민 등 그 조각조각을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푸념해보기도 하고 작은 상상을 해보았다. ‘없어도 괜찮은 일’이라는 게 있을까? 일의 가치는 누가 매기는 걸까?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을까? 가시화되지 않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일’하며 살아야 한다면 조금 더 만족하며, 다양한 상상을 하며 일하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일’은?

박티유기

소리 : ‘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임금노동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자면, 사회적경제 특구 거점 공간이라고 해서 골목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요. 거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협업 상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이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해진 방향이 전혀 없었는데, 저와 동료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함께 프로젝트 기획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전에 공간 기획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서를 완성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개척’이에요. 뭔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 지역에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무심코 지나쳐왔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초반에는 막막하다는 불안감이 컸고,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임금노동이 아닌 일은 집안‘일’인데요. 집에 가면 너무 일이 많아요. 혼자 사니까,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어질러진 방을 치우면 시간이 다 가요. 바닥에 머리카락도 좀 줍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잡념이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의미로써는 긍정적이지만 아무도 그 일을 알아주진 않는다는 양면적인 감정들이 때가 있어요.



진진 :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는 ‘팀워크와 연대감’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일하면서 가장 느끼고 싶은 게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운동선수(농구선수)를 했었어요. 그때 같이 뛰는 친구들이랑 눈만 마주쳐도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아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런 경험을 일에 적용해 봤을 때 팀워크와 연대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제게 연대감은 같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음을 뜻하고, 그런 의미의 일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대체로 하는 일들은 임금노동이 아니고요. 임금노동을 생각할 때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찾는 느낌이긴 합니다. 작년에 저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곳에서 일을 맡았는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성과는 있어야 했고요. 그래서 소리 님이 말한 개척이라는 단어에 너무 공감했어요. 개척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지만 오히려 제가 겪었던 것은 ‘맨땅에 헤딩’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개척이라는 단어가 실현되려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진아 : 저는 일이라고 했을 때 ‘활동’이 생각나요. 저는 일과 생활의 경계가 잘 없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저는 저도 모르게 사무실에서 다소 기계적인 사무업무들을 할 때는 ‘업무’를 한다고 표현하고 활동을 할 때는 ‘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무의식적으로요. 제가 일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사무적인 업무랑은 분리되는 어떤 것을 떠올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직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 방향은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자체로도 즐거운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일이 개척과 헤딩 같네요.

슬기 : 작년까지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그걸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요새는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있는데도 피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9시부터 18시까지 주 40시간 일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주 4일이 요새 저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주 4일 하고 싶어요. 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주4일’!

소리 : 워라벨이 지켜졌는데도 왜 피곤하다고 느껴졌는지 궁금해요.

슬기 : 작년에는 피곤해도 효능감이 있었어요. 몰두해서 일을 열심히 했고요.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지만 재미있고 할만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그만큼 해냈다는 뿌듯함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올해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의 경우에는 처음에 일을 안 줘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일이 잘 없다 보니 원래 공공기관이 다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일이 많을 땐 후다닥 끝내 놓으면 위에서 일이 막혀서 진행되지 않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일의 진척을 기다리면서 책을 읽고 논문 자료도 찾아보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재미없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런 날은 집에 오면 체력은 남는데, 정신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계약직이라서 일을 안 주는 건가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니까 차라리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퇴근하는 삶이 제게 훨씬 잘 맞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예림 : 저는 일이라고 하면 임금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돈을 받는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일이라는 걸 처음 시작한 게 아르바이트라서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무슨 일이든 시간과 내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돈만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떠한 일이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대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소리 : 대가가 없는 일은 괴로운 것 같아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보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어떤 일이든 확실하게 그런 게 없다면 괴롭겠죠.

진아 : 대가는 당연히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조직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 이런 생각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제인 것 같아요. 단순히 ‘돈 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곳에서 효능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리더들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

소리 : 효능감(?)에 대해서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게, 한번은 직장 상사가 제가 일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압박이 되더라고요. 일을 재미있게 하지 않는 것이 노동자만의 탓은 아니예요. 관리자의 몫일 수도 있고 관리자도 어찌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즐겁게 일하는 것까지 요구한다면 노동자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무 시간도 지켜야 하고, 장소도 지켜야 하고, 일에서의 효능감까지 느껴야 한다면….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그만큼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것들도 일종의 워너비(?)랄까 부담이 되는 듯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소리 : 자유롭게 자신이 요즘 하는 일에 대해 말해보면 좋겠어요.

슬기 : 저는 경영지원팀에서 보통 자산 관리, 회계, 재무, 세무 등 조직을 굴러가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맡아요. 매달 나가는 지출을 처리하고, 지출결의서를 대조하고 정리하고….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재미가 없어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실제로 직급이 높으신 분이 제가 하는 일에 ‘하찮은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내 일이 하찮은 일로 치부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조직에서 이렇게 효능감을 못 느끼는 것도 당연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리 : 저는 이게 계약직의 일과도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계약직이 하는 일도 회사에서는 그 일이 필요하기에 사람을 뽑아서 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이고 손이 가는 일이란 걸 알고요. 어쨌든 일할 사람은 필요로 하면서 그 일을 맡는 사람과 그 일은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진아 : 맞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성과로 바로 보여지기 어려운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트워킹과 같은 기획이 주 업무인 경우, 특히 미담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때 고민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진진 님이 예전에 미담에서 어려운 숙제 같은 게 아니라 재밌는 걸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너무 동의해요. 사람들은 일이라고 하면 성과가 눈에 바로바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트워킹은 그런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청년 네트워킹 업무를 맡다보면 고민이 되는 것이 많아요. 보통 보여지는 성과는 간담회, 포럼 같은 것일텐데 이런 경우 청년들이 대상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그게 필요한 네트워킹일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요.

소리 :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드는 게 한 번의 간담회나 행사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맨땅에 헤딩’ 해나가야 하니 조직에서는 좀 더 즉각적이고 바로 사진 등의 결과가 나오는 행사에 집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00을 하고 있다’가 명확히 보이는 딱 그 정도의 것을 요구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진아 님의 말에 많이 공감이가네요.

진진 : 헤딩이 뜨거운 감자 같은데요(웃음).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일단 소셜 벤처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고,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온 교육 방법론을 활용해서 진행되는 창업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개인의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악의 없이 하찮아 보일 수 있어도 개인이 맡은 일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하는 조직구성원들의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구성 하나 자체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으니깐요. 그 일들이 조직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 미션이 팀워크를 통해 분류되는 거죠. 코치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대기업에서 이런 문화는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경제에서도 이런 걸 바라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단법인 설립 프로젝트 안에서 소셜 살롱을 만들어서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논의를 해요. 미담처럼요. 좋은 마음에서 모여서 해도 되지만 지속가능성 있게 운영해보자는 마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지적 호기심에서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팀워크, 좋은 일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 조직 안에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장하고 실패하는 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면서 돈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취업 시장에서 경쟁하듯 석사나 박사 과정을 밟고 스펙을 만드는 것보다 이런 일의 경험들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사회적경제 쪽에서 이런 일을 하면 시장이 아니라 권위적으로만 다뤄져서 가치가 절하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을 해보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청년이 ‘일’할 때 요구되는 것

진진 : 사회적경제 쪽에서 일을 진행했을 때, 신선하고 ‘청년’스러운 걸 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컨대 저희는 사무공간이 없어서 공간 내에 취업 카페가 있었는데, 그곳을 약간 편법으로(?) 사용했거든요. 1평 남짓 공간에 2명이 들어가서 일했어요. 어쨌든 그건 참고 일할 수 있는데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저희를 못 믿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정확한 지적이 없는 수정을 계속한다든지요. 공간적인 분리가 있으면 더 명확하게 일의 방향이 정해져야 하는데. 현직에서는 협업 툴을 낫설어하시면서도 젊은 애니까 컴퓨터도 잘 다루고, 유튜브 편집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관리하는 등 젊은 감각을 갖추고 있기를 요구해요. 제 업무가 아니어도 알려드리지만 정작

제가 기존 업무를 어려워할 때는 도와주시지 않는 경험도 있고요.

소리 : 확실히 요즘 청년에게 요구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아 :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참신하고 신선한 때론 패기 넘치는 아이디어를 낼 거라고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기존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낸 아이디어만 받아들여지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성세대의 잘못이나 문제들을 짚어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조직의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때 그걸 납득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패기로운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우기

진진 : 동의해요. 저도 매일 매일 싸웠고요. 기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 기존 것 안에 있고자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요구받아서 실험이나 시도를 제안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냐는 답변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홍보 성과를 잘 냈는데, 이렇게 함께 맞춰가면서 일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랑 이야기를 안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도 있었고요. 오히려 맨땅에 헤딩하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편하게 일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나의 일, 만족스러운가요?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이유는?

소리 : 미담 1기 할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문제인데요. 알바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일의 경중을 따지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요. 그럼 제가 알바를 뽑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웃음).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알바도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배달노동자 조합 운동을 하시는 분이 쓰셨더라고요. 사업장에서는 여건이 안 되어서 정규적으로 고용할 순 없어도 그들(알바 노동자)이 필요하고, 그들이 꾸준히 일하는 상황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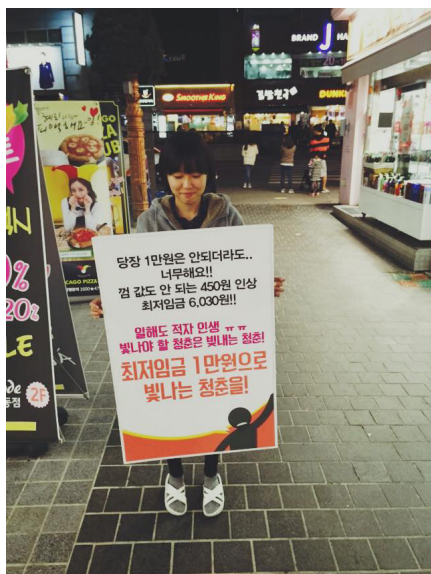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할 때만 쓰고, 근무 조건이나 환경이 개선되지도 않고 노동자도 개선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말도 들었고요. 사람을 일회용품처럼 쓰는 느낌도 있어요. 저조차도 그런

인식이 쌓이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알바도 직업이라고 여겨지고, 사회 인식이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정식적인 ‘일’은 아니라는 듯한 대화들, 안정성을 가지는 직업을 가져야 ‘일하는 상태’라고 여기는 압박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기성세대의 그런 인식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용 형태가 전부 정규직으로 바뀌는 게 어려울 테니 현재 상태를 생각하는 제도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그게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아 : 비슷한 고민인데요. 최근에 그래도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고 말하기보다 잘못된 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그냥 시대 차이라고만 이야기를 해버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 세대 갈등으로 환원해버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을 대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최근에 유기농업에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세대 갈등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어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청년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를 농사가 힘들기 때문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농촌에 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텐데,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 싶어요. 실제 요구에 기반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과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싶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의 세대 갈등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를 보면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틀에 머물러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슬기 : 저의 경우에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도망치듯 보여도 그 조직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세대는 장기근속이 답이라고, 한곳에 많이 머물러야 이기는 거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직장을 옮기면 끈기 없는 것이라고 여기시더라고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은 있으니가 네가 참아라, 하고 이야기하시고요.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부당한 경험을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많이 되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내던져지다니 정말 하찮아요. 심지어 저는 근로계약서조차도 어떻게 보는지, 부당한 계약서를 써도 효력이 없는 것도 몰랐고 일단 계약서를 썼으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부당한 일을 계속 당했을 때, 알아보는 것도 내가 혼자 알아봐야 하고 싸울 때도 노무사를 찾아가 비용을 내야만 겨우 싸워볼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받았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리 : 동감해요. 일이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관련된 교육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에 대해서 청년과 청소년에게 교육하지 않는 사회가 유지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걸 몰라서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림 : 제 알바썰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서빙이 첫 알바였는데요. 각자 홀에서 담당하는 테이블들이 있는데 저는 막내니까 제일偏僻한 곳을 담당했구요! 누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손에 익지도 않았는데 빨리하라고 하니까 사고를 자주 치게 되더라고요. 그때 매일같이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친구한테 했었어요. 두 번째는 동물병원에서 일했는데 작은 동네에 있는 동물병원이라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애초에 경력직을 뽑는 자리인데 제가 올려둔 공개 이력서를 보고 병원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여기도 인수인계라든지 알려주는 거 없이 일을 계속했는데, 그러니 제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답해하셨어요. 6개월쯤 되어가는데 갑자기 원장이 불러서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번 달까지만 하고 관두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그만뒀어요.

소리 :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알바에게 잘 알려주지도 않고 일 못 한다고 하죠. 사회 초년생들에게 있는 일들과도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특히 업무를 여러 군데 옮기는 사람일수록 이런 일을 많이 겪는 것 같고요. 적응의 기간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지 않고, 경력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진아 :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업무처리 하는 기계나 컴퓨터의 느낌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는 말을 잘 듣겠지만, 사람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감정과 고민을 동반하잖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는 명령을 입력하면 그것대로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자기가 가지는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 일을 해내니까요. 어떻게 보면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인데, 사람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니 그런 행동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화가 나네요.

만족스러운 일을 위해 필요한 건 뭘까?

소리 : 만족스러운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갖춰져야 한다든지 등을 이야기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많이 이야기할수록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나를 계속 일하게 하는 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진아 : 예림님은 앞서 말한 일의 경험을 통해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림 : 특히 알바의 경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이것도 못해?’라는 태도가 많은 것 같아요. 알바도 이력서를 보고 뽑고 다른 알바를 한 적 있는 사람, 경력직 신입을 요구하고요. 저는 일단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체계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좀 더 계약서 쓰는 것도 당연해지고 처음 배우는 기간에 수습 급여를 주는 등 그런 인식들이 생겼지만, 여전히 일을 빨리 못 배우는 것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악순환의 구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또 나가고, 또 더 빨리 배울 사람을 찾고요.

당신에게 일은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소리 :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일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맨날 하는 가사노동이라든지 임금노동, 자투리 일, 사회활동에 이르기까지 ‘일의 경험’이 사람을 많이 바꾸잖아요. 사람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할까까지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도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임금노동을 취급해주지 않을 거라면 그 대가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정말로 다 깔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가 돌봄 노동을

평가절하하지 않게 된다면 좋겠어요. “아 왜 정 없이 그래. 당연히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식의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일로써 자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한데요. 일로써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는데, 정당한 대가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노동을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아 :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대가라는 게 화폐, 돈으로 귀결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어쨌든 노동자가 대가를 이야기할 때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더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돈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뭔가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꼭 팀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전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고민이나 상황을 반영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치 지향적 조직에서는 돈 받으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일의 대가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내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화폐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처럼 숫자만 두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금액, (기본소득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그런 거를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하잖아요.

슬기 : 공감하는 게 제가 2019년에 입사할 때 월급이 130만 원이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2시간 동안 일하는, 말이 안 되는

계약이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돈은 조금 덜 받아도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계속되다 보니까 내 삶이 진짜 망가지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드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사실 활동 판에서 되게 많은 사람이 돈 받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라고, 활동 중심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박봉이거나 아예 임금이 없는 곳도 있고요. 이런 게 너무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해요. 돈줄 여유가 없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타깝지만요, 그럼 그렇게 사람을 부리면 안 되죠.

진진 : 전제되어야 하는 것을 빼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활동할 때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려면 나에게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내가 용돈만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전제되어야 내가 130만 원 한 달에 받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납득이 되죠. 저도 사실 지금 아빠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거가 안정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내가 낼 거 다 내면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전제들이 없이 ‘그 활동 돈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 하는 말은 성립할 수 없죠. 전제가 있다면 몰라도 없으니까 전혀 성립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일이란?

소리 : 우리가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 그래서 나에게 일은 무엇인지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일은? 헤딩? 대가? (웃음)

진아 : 저에게 일이란 삶의 반인 것 같아요. 일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내 삶을 구성하는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힘들고 그게 왜 문제인지 계속 이야기해온 것 같아요(웃음).

진진 : 저에게 일이란 제 삶인 것 같아요. 일이 없이 제 삶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자기실현을 어떤 수단으로 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저에게는 일 외에 그렇게 뭐가 막 존재하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일이라는 정의를 넓게 쓰기도 하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져야 하고, 타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일이란 삶이다?

예림 : 저에게 일은 동력인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일들을 벌여놓고 있는 상황인데 (웃음) 이게 없으면 오히려 저는 더 무기력해지고 우울한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일 하나를 시작하면 또 다른 일들도 도전해 보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돈을 받고 싶어요.

소리 : 저에게 일이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시킬 거라면 제대로 주고 시켜라.’인 것 같아요. 인정을 해주던, 대가를 주던지요. 일이 돈으로서만 기능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돈으로만 평가된다면 찝찝한 기분이 들지만!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슬기 : 나에게 일이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앞서 말한 필요충분조건이 전제된 상황에서 이직을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 이직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고민하겠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진아 : 미담 이야기는 늘 가볍게 시작해도 화나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진진 : 올 때마다 분노 버튼을 꼭 누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소리 : 담소 모임을 하고 나면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가 카페에서 일하다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노무사를 만나서 신고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진진 : 대부분 우리가 겪는 일상적 부당함을 극복하는 일들조차도 왜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서비스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혼자 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내야 하고. 부당함이 너무 많은데 혼자 해결해야 하는 느낌이 들어요. 법조문 찾아보고 어디 가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네요.

진아 : 인간답게 살려면 자본주의 사회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묘연하고, 부모 잘 만나야 하고.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최근에 공정 관련해서 두 분(슬기 님, 진진 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정말 많은 부분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공정한 과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 같아요. 이 과정의 최종 도착지점은 아마 ‘돈’이겠죠. 그걸 위해 우리가 일하는 거고요. 근데 그 과정의 도착점이 돈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돈이 되다보니까 결과가 항상 같고 그 과정도 어쨌면 딱 정해진 것 같아서요.

소리 : 돈으로 지급되지 않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으로써 인정받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면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가지, 하는 생각은 계속 고민되겠지만요.

진진 : 우리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공동체를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현재 사회의 대안 공동체들이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대안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파이를 계속 키우고 이거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일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에요. 실제로 한살림이라는 공동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필요에 맞는 주장도 해보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리 : 오늘 즐거웠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일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말하는 ‘일’ 말고도 다른 ‘일’들을 떠올릴 수 있는 공동체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정리하고 있는 지금 나는 계약직 종료로 퇴사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흔히 말하는 사회의 기준으로는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일에 대해서 말해도 되는 걸까? 나는 여전히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일을 통해서 대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그런데 일에 대해 생각할수록 명확해지는 점이 한 가지 있다. 하늘 아래 똑같은 ‘일’은 없다는 것! 슬기 님이 담소 중에 자신에게 일이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을 찾아가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부딪혀 나가겠지. 일은 그 결과이면서도 과정일 테다. 온전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듯, 일 또한 그렇게 생각되면 좋겠다. 일을 평가하는 잣대가 획일화되지 않을수록, 뻘뻘해지지 않고 자본 중심화되지 않을수록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되어가지 않을까? 어쩌면 미담에서 나는 대화가 그 시작일 거라고 믿는다.

정리 : 소리

원동력, 나를 움직이는 힘

예림 : 원동력의 사전적 정의는 ‘움직임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몸이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인생에 타임라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각의 타임라인마다 나를 움직이게 했던 것들, 감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 다양한 계기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동력

예림 : 저의 경우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저를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고, 함께 원하는 것도 이루고 싶어서 공부를 하기도 했죠.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양한 가치들을 지향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차원이예요. 이 사람들과 뭔가를 해보려고 활동을 찾거나 공부를 하거나 했던 것 같아요.

진아 : 저를 움직이는 힘은 분노였던 것 같아요. 정의로움에서 온다고 보다,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 이건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면 움직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그것이 저 스스로가 당하는

부당함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겪는 부당함에 대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겪는 부당함은 참는 버릇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참으라고 많이 학습 받아온 것 같기도 하네요(웃음). 그런데 소중한 사람들이 겪는 부당함에 대해 분노하다 보니까 그 분노의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네요.

슬기 : 저도 공감이 되네요. 대학 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어디에 가서 누구와 연대하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다가 결국에는 ‘아,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흐려졌죠. 일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겹치면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는 과거의 일들보다도 당장에 내 일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진진 : 저는 저에게 가해지는 부당함이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고등학생 때 저는 운동을 했어요. 그곳의 교육 문화는 까라면 까라는 식이에요. 굉장히 부당한 문화들이 많이 있죠. 부당함을 잘 못 참는 성격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해요. 거기에 확장해서 남이 겪는 부당함에 대해서도 공감하려고 노력해요. 2014년 이후에 관심이 생겼던 인권 이슈를 접하면서 남이 겪는 부당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림 : 나의 경험에서 마주한 부당함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에 속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당함에도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나를 움직이는 것

예림 : 주변 동기들을 보면 학교를 어느 정도 다니고 교환학생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과 일도 중요하지만 챙겨야 할 다른 것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하던 것들을 왜 시작했는지, 어떤 이유로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뒤쳐진 느낌도 많이 들어요. 저는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멈춰버린 것 같아요. 과거만큼 지금 현재의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슬기 :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신의 스펙을 더 많이 쌓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강박이 들어요. 당장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해내야 할 것 같고.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과거의 원동력으로 활동가의 삶을 선택했거든요. 친구들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제가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활동가의 삶을 살다가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저 스스로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난 학사밖에 없고,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고요. 남들은 다 대학원까지 나오니까, 학사 이상의 학력이 평균 같고 월급을 올리려면 뭐라도 더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그것은 제 원동력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죠.

진아 :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학교 다닐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할 때마다 주변에서 너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하는 말을 했었어요. 저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현재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살자고 다짐했었거든요. 그런데 활동가로서의 삶을 유지하더라도 활동가 안에서도 고학력을 요구받고, 그 사회가 원하는 모든 스펙을 갖춰야 할 것 같고 그런 압박을 받을 때가 많죠. 대안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이어서 하고 싶는데 그러려면 사회에서 제안하는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 갖추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웃음). 내가 꼭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내 경험을 서사화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수면 위에 드러내고 무언가 바꾸고자 상상력을 기반으로 활동을 조직해 낼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공간에서조차 사회의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죠, 지금 당장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보다도 남들이 요구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건가 싶은 딜레마요.

예림 : 활동가로서의 가치관이 나에게 중요하더라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질서에 맞는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이 듣기 싫어서라도 해야 하는 건가 싶어요 교환학생을 가면 저의 이력에 한 줄 더 생기지만, 교환학생을 가지 않고 대학에 남아서 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솔기 : 과거에는 저의 원동력은 분노였지만, 지금은 돈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진짜 출근하기 싫지만, 월급을 받아야

하니까 몸을 움직이게 되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돈이 가장 큰 원동력이네요. 먹고살아야 하니까(웃음).

진진 : 저는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것과 남들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먹고 살 수 있는지, 그것만으로 만족하는지를 따져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말고를 결정해요. 여러 판단 기준을 가지다 보면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일지 잘 모르겠어요. 같이 활동하다가도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걸 보면 나도 로스쿨을 준비해야 하나 싶다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비교했을 때 정말 저 길을 그대로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일

예림 : 우리는 자꾸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 뭔가를 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즐겁게 하는 원동력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너무 많은 일들을 시도하다 보니 스스로 한계를 넘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번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역량이 안 되는 일을 너무 벌여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무리하는 느낌 없이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들어요.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이겠지만, 균형을

빨리 찾고 안정을 느끼고 싶어요. 나의 원동력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면, 그 움직임에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찾고 있으신가요?

진진 :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다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웃음). 균형을 잡기 위해 저는 지속가능성에 키워드를 맞추고 사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운동을 하셨는데, ‘왜 한 달에 30만원 밖에 못 받고 일을 하는거지?’하는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활동을 하면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부당하다고 느껴졌죠. 그래도 사람이 적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치 있는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거 같기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임팩트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기본적인 욕구에 방향을 잡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그 시도가 지속가능한 것, 일 자체의 지속가능성도 있지만 내 삶이 지속가능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진진 : 또 다른 하나는 부당함을 참지 않는다는 것이예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꼭 부조리를 겪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지 않고, 조직 문화가 좋은 곳을 찾아서 들어가거나 차라리 내가 하나 만들자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죽어도 부당함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간을 부당함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아 : 저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나의 방향을 찾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흔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혹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스스로의 성과를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미담과 같은 모임도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우리는 많은 담론을 조직 차원의 내용으로 채우거나,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지하여 만들어내는 경향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개인의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자, 대안을 만들어내는 운동에 개인의 이야기를 더 드러내보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드러낸다고 할 때, 만약 개개인이 아니라 보편적 청년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하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양 측을 다 해보자! 하고 호기롭게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가치가 충돌되는 측면들도 발생을 하고요. 양자의 고민 사이에서 질적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슬기 :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이 나이는 이걸 해내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저걸 해내고, 이런 계획은 애초에도 없었어요. 큰 가치관을 정해주고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이때까지의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의 열정과 체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나의 열정을 극대화할 수 있고, 더 자극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즐기면서 다시 찾아보자는 하는 생각이 더 많아요. 열정과 체력 범위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해내 보자 뭐 이런(웃음).

예림 : 우리 모두 ‘다른 삶’에 대한 지향을 가지는 것 같아요. 계속 살아나가려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단 싶어요. 생각에만 멈추지 않으려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도 계속해나가야 하고요. 이런 모임이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어요. 틀에 정해진 것에 벗어나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멈춰있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 내에 쿼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활동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알고 지내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멈추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나.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 개인을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지향한다. 다른 삶이란, 사회에서 규정하는 대로가 아닌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모습일 것이다. 이견 단순히 ‘아 다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라는 생각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다른 삶에 대한 욕구는 경험적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강요받아 온 사회가 원하는 삶의 루틴을 벗어나고 싶은 것부터 시작한다. 눈앞에 제시된 삶의 루틴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을 밟고 올라가서 잘 사는 삶 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사는 삶의 모습이 나의 삶에 더 도움이 된다. 끝없는 경쟁에서는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만이 남을 뿐이다. 그런 두려움은 청년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몬다.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삶의 방식을 함께 살아갈, 또 이야기를 나누며 용기가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오늘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건 규정된 삶을 충실히 살아낼 때보다 ‘나’라는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힘을 알아내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갈 때이다. 미담 구성원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분노’, ‘부당함’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를 원동력 삼아 어떤 것을 해왔고 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제는 당장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삶의 과정 속에서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 우리는 계속 만나야 한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부당하다고 느낄 때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며 살 수 있다. 우리의 분노와 부당함은 서로 닮아 있으므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

정리 : 진아



4

움
트
기



삶의 태도나 자신의 가치관 같은 건
두렵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1.

안전한 공간과 새로운 언어

나는 거절하거나 실수할 권리가 있다.

극단 Y, 안전한 공간과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

소리



극단 Y를 만나다

미담과 극단 Y가 해화의 한 공간에서 만났다. 페미니즘 연극을 만들고,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 규범과 젠더 질서에 질문을 던져온 극단 Y. 제작 과정 속에서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 맺기에 대해 고민하는 극단 Y는 창작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계와 폭력에 저항하는 곳이다. 미담도 ‘따로 또 함께’ 온전히 우리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위계와 폭력에 저항하는 언어들을 만들 수 있을까? 또 그런 목소리들이 누군가에게 닿아 용기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앞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만나 그 과정에서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서로가 처음이라

윤지 : 극단 Y에서 글 쓰고 연출하는 강윤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샘이 : 극단 Y에서 연극을 기획하고 있는 최샘이라고 합니다.

“미담은 매주 모여서 서로 어떻게 사는지 공유하고, 살면서 마주하는 어떤 폭력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폭력을 마주할 때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평소에 일상에서 느끼는 두려움, 불안함, 분노 등 여러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진진 님께서 극단 Y에서 우리의 고민과 연결된 연극을 하고 있으니 함께 보자고 제안을 주셔서 <제1강: 거절하는 방법> (이하 <거절하는 방법>)이라는 연극을 봤어요. 연극을 보고 우리가 하고 싶던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극단 Y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미담에서도 우리의 고민을 확장해서 언어를 만드는 활동을 기획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지점을 찾고 있던 중이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수락해주셔서 감사해요!”

윤지 : ‘한살림이 극단 Y에 왜 인터뷰 요청을(웃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더 맞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소리 : 최근 미담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두려워하지?’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를 공유하기도 했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거 공간, 마음 놓고 먹거리를 마주할 수 있는 공간, 생활 속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처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실험적이고 안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미 자신들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여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극단 Y는 문제에 직면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목소리를 내는’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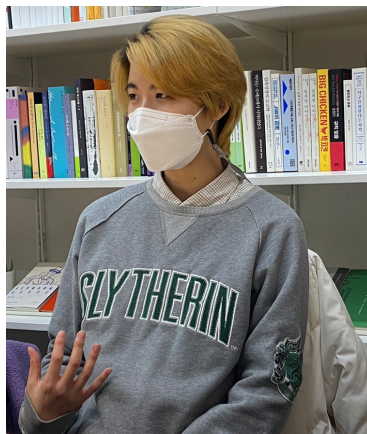
진아 : 한살림이 다루고 있는 먹거리에는 사회에 필요한 많은 담론이 교차한다고 생각해요. 극단 Y에서 주제로 삼고 계신 페미니즘과도 맞닿아 있고, 동물권, 노동권도 되고요.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는 한살림이라는 공간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되고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한살림이라는 공간에 대해 들었을 때 딱 ‘청년’이 떠오르진 않았어요(웃음). 한살림이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 그걸 느끼고,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함께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청년들이 잘 보이지 않죠. 기존의 구조 안에서 청년들의 이야기가 더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극단 Y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연극계라는 구조에서 또 다른 언어들을 만들어내면서 청년들이 스스로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언어를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주시면 저희 활동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극단 Y가 시작하기까지

소리 : 극단 Y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윤지 : 2017년까지만 해도 연극계 시스템 자체가 단체 이름, 사업자가 없으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개인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개인의 이름으로도 신청해서 창작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요. 기성세대 단체들 중심으로 활동이 이어 나가지던 때였고, 그때 활동을 하려고 사업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서류상으로는 시작이었어요. 2018년도 초에 연극계에 크게 미투운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연극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환경을 다시 들여다보고 변화하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해당 취지에 동의하는 혹은 변하고 싶은 창작자들이 같이 극단 Y라는 공간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소리 : 두 분께 각자 여쭙고 싶은데, 윤지 님이 연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샘이 님이 기획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샘이 : 저는 연극이나 예술 관련 공부를 했던 학생이기는 했지만, 2018년 연극계 미투운동 당시 연극 현장에 속해 있지는 않았어요. 2018년 2월 16일 미투 고발 글이 올라오고, 21일 극단 고래에서 모임 때부터 다시 연극 현장에 들어와 활동했어요. 그때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¹이 결성되었는데요. 그 단체에서 ‘안전’과

1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며 나아가는 수평적인 연극인들의 운동. 성폭력 및

‘우리의 환경’을 고민하는 많은 연극인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윤지 님이 그 중 한 명이었어요. 활동을 만들어내는 기획으로써 인연이 닿은 거죠.

한번은 제가 축제를 진행했는데 윤지 님이 같이 일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것저것 같이 하다가 극단 Y에서 기획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싶어요!” 해서 그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시 윤지 님이 지원서를 내고 작품을 올릴 때 기획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씩 같이 일했어요! 아무래도 그때 회사에 다녀서 문서나 행정적인 업무가 조금 능숙했고요. 또, 무엇보다 진심으로 극단 Y의 작품들이 제게 인사이트를 많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 출발점은 공연예술에서 전문적인 기획역량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라서 지금 배워나가는 새내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리 : 도와주셨다는 건 어떤 축제였나요?

샘이 : 권리장전이라는 축제였는데, 2016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윤지 : 당시 연극계에서 블랙리스트 사건²이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위계에 의한 모든 폭력에 의한 폭력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처: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페이스북 정보란, URL: <https://ko-kr.facebook.com/theaterwithyou/>)

2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 및 검열하고 지원 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야당 후보를 지지한 문화예술인들이 이에 포함되었다. 참고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220217513828?OutUrl=naver>)

검열당해서 지원에 떨어지거나 지원취소를 강요받거나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권리장전은 ‘그동안 검열당했던 혹은 이 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연극인들이 모여서 연극으로 블랙리스트에 대항하는 운동을 하자’해서 만들어진 (연극)축제예요. 샘이 님이 재작년부터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진아 : 윤지 님은 어떻게 연출을 시작하셨나요?

윤지 : 저는 고등학교 때 연극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쪽 하고 있어요. 그때는 연출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는 연극반에 들어가면 다 연기를 해요. 2학년, 3학년이 되면서는 1학년의 연기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안했던 것들이 좋은 그림이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연출 입시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소리 : 한 가지 분야에 꾸준히 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윤지 : 그래서 이제 슬슬 때려치울까...! (모두 웃음)

안전한 창작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슬기 : 극단 Y의 네이버 블로그 글을 읽어봤어요. 작업하실 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규칙을 정하고 진행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윤지 : 2018년~2019년도 경에 ‘한국여성의전화’에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여성의전화 내규에 권리장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 저희도 정한 내용이 ‘나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실수할 권리가 있다.’ 이 항목이에요. 소위 막내거나, 여성이거나, 젊은 창작자들은 어떤 단체에서 거절하거나 실수할 권리 같은 걸 생각해보지 못해요. 늘 완벽하거나 잘해야 한다고 배우고, 눈치껏 센스 있게 해냈을 때 예뻐 받고 또 인정받게 되니까요. 그런 인정 욕구들이 계속 있고, 실수하면 내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이 너무 많다고 느꼈어요.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짙었거든요. 그러다가 여성의 전화 권리장전에 있던 내용을 통해 ‘나는 거절하거나 실수할 권리가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깨달은 거죠.

‘나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실수할 권리가 있다.’를 포함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연습이나 연극계 시스템에 맞춰 극단 Y 내규를 완성했어요. 그 과정에서는 배우들과 함께 논의를 했죠. 배우들이 “이 항목에 배우들의 부상에 대한 권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의견을 내서 상해에 대한 항목들을 추가하기도 했어요. 저도 사실 이런 약속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게 걱정이 되었어요. 총 17가지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 항목은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에 맞춰서, 우리 작업에 맞춰서 변할 수 있는 항목이다. 고정된 약속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 진행했어요.

소리 : ‘거절하거나 실수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 안겨주는 생각의 전환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윤지 : 맞아요. 그 외에는 대본에 맞춰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344명의 쌍년들>이라는 공연은 임신중단에 관한 공연이었는데, 여성들은 각자 개인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굳이 내 일이 아니더라도 친구의 일이라거나 발을 동동 구른 경험과 기억들이 있어서 연기하면서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우로서 연기하는 것과 개인으로 아픈 것은 다른 문제라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약속들을 같이 찾으면서 만들었어요.

서울여성활동지원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극단 Y

10:44
10 29 2021

창작자를 위한 안전을 설계하는 방법

: 극단 Y 사례를 중심으로

2021년 10월 29일 오후 7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강의장 3층
(불광역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6층)

슬기 : 미투 이후의 창작자로서 3년~4년 가까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현장이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윤지 : (샘이 님을 보며) 좀 현장이 좀 바뀌었나요? (웃음)

기록
아름



샘이 : 현장이 바뀐 거는.... 글썄요. 모든 사람이 다들 다르게 느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2018년 2월 이후로 저의 현장은 정말 안전한 편이었는데, 그건 나의 안전을 얘기하면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건강한 동료들이 있었고, 함께 그런 현장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있는 곳을 당연히,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지 않고 계속 성찰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믿고 의지하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어져 오셨던 분들이나, 기성세대나, 혹은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지만 여기에 신경 쓰는 것보다 자기 작품이나 자기 활동에 신경쓰거나 같이 연대하지 않는 쪽에서 본다면, 만나는 사람들이나 자기의 현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제일 큰 변화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했을 때 서로 금방 이해하고 같이 뭉쳐질 수 있는 동료들이 분명하게 생겼다는 게 연극 사회 내에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서 감히 “변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고,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지원사업 분야에서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지원사업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거든요. 표준계약서 내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대한 준수사항이 조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지원사업 교부신청 전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단체 참여자 1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강사들을 3년 동안 양성해왔고, 그 강의들이 사업으로 조성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 : 변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더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속되게 말하면 현타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해요.

윤지 : 일단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목소리가 (정말 많이) 필요했어요. 서약서 하나를 쓰는 것, 표준계약서에 성희롱 예방 교육 하나 들어가는 것이 의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명문화된 무언가일 뿐이지만, 이 ‘하나’에 반발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 국립극단에서 작업하려면 의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제도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지금 간신히 하나 들어갔다.” 이 정도가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내 환경이 바뀌었고, 내가 바뀌었고, 그리고 이런 목소리 내는 애들이 있더라, 정도는 다들 알게 되었어요. 원래는 성희롱, 성폭력 같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도 다시 작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큰일 난다는 정도의 인식까지는 생긴 것 같고요.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뭔가 바뀌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젊은, 여성, 연출 이렇게 속하는 사람이라서 원래대로라면 제가 갈 수 없는 자리, 초대받을 수 없었던 자리, 예를 들어 자문을 요구한다든지 현장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발제자나 패널로 초대한다든지 이런 일은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자리가 계속 생긴다는 점에서 변했다고 느껴요.

창작산실³ 사업에 지원했을 때, 저랑 다른 30대 여성 연출님 이렇게 두 팀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거는 저와 그분의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작산실은 여성 창작자를, 혹은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는 창작자를 선정한 전례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기운의 창작자가 두 팀이 있으니까 둘 중 한 명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도 안 되느냐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기성 남성 연출가들은 제외이고요(웃음). 그 이야기가 좀 속상했는데, 현실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팀 다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되자마자 우리 팀에게 연락한 게 아니라 그 연출님께 연락했어요. 둘 다 되어서 너무 좋다고. 창작산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은 나이대의 여성 연출이 이제까지 선정된 적이 없었어요. 거의 50대 남성 연출들이 하는 시스템이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변화의 새싹들은 보여요. 하지만 저는 정말 현장이 변화했는지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정이 되어서 극장 답사를 갔는데 (현장에서) 제가 연출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출은 좀 중년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담당자가 계속 와서 “연출님 오셨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연출이에요.” 이 말을 서너 번 넘게 계속했거든요. 현장의 어려움은 제가 일단 연출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어떤 지위나

3 공연예술창작산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으로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창작오페라 등 공연예술 전 장르에 걸쳐 우수창작레퍼토리를 발굴한다. (출처 URL: <https://www.arko.or.kr/content/2211>)

위치에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연출에게는 하지 않았을 말, 실례가 될 말을 저에게 한다든지 그런 풍습이 여전히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좀 타파해 나가는 중입니다.

샘이 : 2020년이 한국 연극의 해였어요. 아마 잘 모르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아까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런 작업이 더디게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조금 맞는 예시 같아요. 윤지 님도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대표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셨는데, 원래라면 ‘00의 해’에 선정되면, 기존에 했던 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이런 연극을 했습니다, 이런 연극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고서는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진행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계속 요구한 끝에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2020 연극의 해’를 준비하는 토론을 여러 번 거쳤어요. 축제성을 내려놓고 ‘우리 연극사회 내에 안전망을 마련하고 자정작용을 하자’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14개의 이슈에 대해 환경을 만들어가는 작업, 자정작용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안에는 젠더 감수성 워크숍, 배리어 프리(접근성 확장) 워크숍, 네트워크 구축사업, 연극인공감120⁴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어요. 그러한 변화가 더디게 가지만 필요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⁵

4 연극인, 우리 스스로의 복지’를 이야기하며, 연극인 동료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상담소. (출처: 연극인공감120 인스타그램 @theater_120)

5 2020 연극의 해(집행위원회)는 더 건강한 연극계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창작환경,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관객소통의 다변화’라는 세 가지 담론을 목표로 삼고 14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극계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사업 진행 과정과 결과를 담은 백서를 제작하였다. (출처: 2020 연극의 해 네이버 블로그, URL: <https://blog.naver.com/2020theater>)

진아 : 젊은 여성 정체성으로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런 현장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윤지 : 제가 2018년도에 ‘10분 희곡 페스티벌’에 참여했어요. 10분 희곡을 공연화하고, 작가들의 단편희곡을 회자시키는 취지의 프로젝트였어요. 지금은 없어진 페스티벌인데, 그 해에 그곳에서 포스터 홍보를 어떻게 진행했냐면, 신진 작가들과 젊은 연출가들의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후에 이메일을 써서 왜 포스터에 젊은 연출가라는 것을 강조했는지, 그것이 왜 홍보마케팅의 수단이 되는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그런 취지의 페스티벌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갔거든요. 여섯 명의 연출가들이 참여했는데 저희는 우연히 동년배들 연출이네, 반갑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홍보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젊음을 이렇게 셀링포인트로 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회신은 오지 않았어요.

거절의 첫 단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다

진아 : 젊은 여성 정체성으로 어딘가에서 배제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일단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도 못하고 거기서 혼자 막 똥해 있고 이런 상황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건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를 ‘잘’ 제기하고 싶고요. 조직에서 배제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런 거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자격지심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서 현명한 대처 방법이 궁금해요.

샘이 : 저는 대처라기보다 그때마다 느끼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윤지 : 안 하거나 거절하거나 해봤는데 결국에는 저보다 더 어린 여성의 사람에게 그 업무가 전가되거나 부과되거나 하더라고요. ‘나는 이것이 부당하니까 하지 않겠다’든지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재는 좀 또라이야, 재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되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하지 않는 일들이 더 어린, 더 취약한, 더 성실한, 더 말 잘 듣는 친구에게 부과가 되어서, 하다못해 물을 떠 오거나 하는 노동을 내가 하지 않았을 때 결국엔 더 취약한 누구에게 돌아가니까 내가 거절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짜로 배제하였을 때는 저를 배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연출로 같이할 사람들을 모으는 포지션이다 보니 제가 들어가거나 합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렵네요. 혹은 이전에 좀 무시를 당했던 기억들은 스스로 지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소리 : 선택할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것도 답이겠네요. 많은 경우에 자꾸 선택당하니까 그러는 거 같기도 해서요. 선택하는 위치에 간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진아 : 그렇게 간다고 해도 그런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는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샘이 : 동감해요. 그 위치로 간다고 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회사에 다녔을 때, 너무 당연하게 커피 탔죠. “샘이야 커피 한잔” 이러면 “네!” 했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회장님, 제가 탄 커피 맛있으세요? 그럼 회장님은 제가 타 드릴게요!” 라든지 술 마시러 갔을 때 “저 술 못 마셔요.” 이런 식으로요. 못 마시지 않았는데(웃음). 나중에 술 마시는 걸 들키고 난 다음에는 회장님이랑 마시기 싫어서 안 마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 같아요. 제 기질이기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질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웃으면서 얘기할 줄 아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성세대 남자 연출들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을 때, “지금 제 앞에서 가해자 성명을 쓰면서 친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거 불편합니다.”라는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됐고요. 만약에 그들이 실수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는 있어야 하니까요.

윤지 : 듣고 보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무 말도 못 하거나 내가 취한 행동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안 돼요 혹은 싫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는 또라이 취급당했고요.

샘이 :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진아 :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누군가가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하기에는 벅찰 때가 많고요.

윤지 : 맞아요. 거절의 방법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질의 문제일 수 있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거절을 개인이 하게 두는 시스템이 일단 문제고요. 거절해도 된다는 생각, 거절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거절해도 된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언어, ‘연극’이 궁금하다

진아 : 연극의 소재를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윤지 : 이 질문이 좀 어렵네요. 그냥 일상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요. 하나의 일상에서 연극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미담이 간식으로 준비한) 이 비건 빵을 받고, 내일 저 거리를 지나쳤고, 모레 무슨 영화를 봤고.... 이런 것들이 조각조각이 들어와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도록 연극이 아닌 곳에서 (소재들)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일단 연극은 제가 너무 관계자이기 때문에 관객의 마음으로 잘 보지 못하고요(웃음). (샘이: 직업병!) 보면서 ‘저거 배우들 되게 고생했겠다. 아, 이거 지금 뒤에서 웃 같아입느라 고생했겠다. 저 조명 다느라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연극은 저한테는 너무 현실적인 문제라서 최대한 다른 것, 다른 환경에서 오는 것이 더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순정만화라든지 책을 읽거나 다른 장르가 훨씬 딱 다가와요.

진진 : 순정 만화하니까 딱 <거절하는 방법>이 떠오르는데요.



윤지 : 아 그래요?

소리 : 순정이라고 생각합니다(웃음)!

진아 : 미담이 함께 보았던 <거절하는 방법>의 소재는 어떤 일상에서 찾거나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윤지 : 우리가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거절한 이후 그러니까 거절하고 그 거절에 응답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술자리에서 친구로부터 그것을 훈련하는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지만요(웃음). 이것을 언젠가 한 번 공연으로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올해

신작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쓰게 됐어요. 제 어떤 노트나 아이디어의 차원으로만 있던 ‘거절’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빠르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슬기 : 미담이 함께 공연을 보고 나오면서 <거절하는 방법>에 등장하는 네 명의 캐릭터 중에 누가 자기랑 가장 닮았는지 얘기했는데, 윤지님과 샘이님은 어떤 캐릭터와 가장 비슷하다고 느끼시는지 혹은 가장 애착이 가는지 궁금해요.

샘이 : 미담 분들이 먼저 얘기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진진 : 저는 일단 모든 캐릭터에 조금씩 이입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감정 이입되었던 캐릭터는 선주였고요. 선주는 공부를 많이 또 열심히 하고 다른 친구들이 모를 때 찬찬히 알려주는 다정한 캐릭터이면서도 제일 외로워 보였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 리아랑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쌍방향의, 깊은 애착을 갖지 못하는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해서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이 자연스럽게 지나고 나면 각자 다른 생활이 펼쳐지고, 대학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공감되었고요.

진아 : 저도 네 분의 캐릭터 모두가 전부 공감되었는데, 저는 사실 자아가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 제가 결정되지, 저라는 사람이 있어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진진님과 맺는 관계 속에서 저의 모습이 다르고, 누구와 있을 때 저의 모습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네 명의 캐릭터 모두 장면들마다

각각 이입되는 것들이 되게 다르고 다양해서 딱 한 명의 캐릭터를 정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샘이 : 어떤 부분이나 장면이 이입되셨어요?

진아 : 선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는 모습, 혼자 고민하는 모습도 이입이 되었고요. 리아는 되게 통통 튀는 매력적인 성격이지만 오히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관계 맺는 것에는 서툰 부분도 좀 와닿았어요. 현과 미소 두 캐릭터에도 공감하는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엄마가 도시락을 해줘서 친구에게 전달하는 장면이라든지 그 관계 사이의 아슬아슬한 불편함이 와닿았어요.

슬기 : 저는 리아가 처한 상황이 저와 너무 비슷해서 공감했어요. 예를 들어서 리아는 실제로 여자를 좋아하니까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 이성애자라고 느끼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애들이 저보고 레즈비언이라고 놀리고 은근히 배제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엠티 갔다 온 건데 뒤에서 소문이 난 적이 있어요. 슬기를 경춘선에서 봤는데 양 옆에 남자가 있더라, 그런 소문들요. 그래서 리아가 너무 공감이 갔어요.

소리 : 저는 현장에서는 두 번 봤고,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었는데 볼 때마다 마음에 남는 장면들이 다 달라서 누구를 꼽으면 좋을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샘이 : 어머 제가 못 알아봤어요, 죄송해요.

진진 : 아, 서로 어떻게 알아보아요? (모두 웃음)

샘이 : 제가 매표소에 있었어요! 어디서 많이 뵈는 것 같더라니!

소리 : (웃음) 저는 현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그때는 페이스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어. 그 페이스가 계속 바뀌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속도로 가기 위해서 되게 애쓰는 사람인데, 이 속도가 변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속도나 방향을 잘 맞추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공감이 갔던 부분은 공간에 관한 대사에요. 현이 34살이 되어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에 관한 욕망과 안도감을 드러내는 대사가 있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서울로 와서 자취하고 있다 보니 그런 대목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샘이 : 저 사실 그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여기에서 인터뷰 왔었을 때 현의 대사 때문에 미담에서 공간 얘기를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소리 : 저희가 <거절하는 방법> 보고 나서 한참 공연 얘기를 했어요(웃음).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거절 이후에 거절을 되돌아보는 것, 내가 거절하고 거절당했던 경험 등등. 그래서 두 분은 어떤 캐릭터에 이입되셨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윤지 : (웃음) 죄송해요. 이게 원래 관객과의 대화라는 행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관객들은 참석자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저희들은 관객들이 어떻게 봤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자꾸 무대로 들어오는 질문을 돌려요.

샘이 : 아니 저도 관객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관객으로서 얘기한 건 안 들으실 것 같아서요(웃음).

윤지 : (웃음) 저는 제가 썼잖아요.

샘이 : 관객으로서 얘기하자면 사담으로 그런 얘기했었던 적 있어요. 얌전하고 집에만 있다는 점에서 선주 재질이라고요.

윤지 : 저희는 다 미소 재질이라고 하고요.

샘이 : 말도 안 돼! 나는 애들을 웃겨본 적이 없어!

윤지 : 미소도 웃기지 않아. (모두 웃음)

샘이 : 아니 그래도 웃기는 걸 좋아하니까! 저도 정말 네 캐릭터 모두 공감과 애착이 가요. 개인적으로는 선주 재질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은 미소 재질이라고 하더라. 이런 결론입니다. (윤지 님을 보며) 어떤 재질이세요?

윤지 : 저는 넷 다 저의 부분들을 나눠 가졌다고, 일부들을 분리시켰다고 생각하긴 해요. 인간은 좀 복잡하잖아요. 누구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무대 인물들은 한 가지 특성을 좀 더 강하게 설정해야 하니까요. 평상시에 어떤 재질은 선주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소리 : 기획하시거나 연출을 하실 때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질문이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지, 최근에 고민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윤지 :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에요. 의사소통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배우랑 스태프들, 디자인.... 영역마다 다 다른 소통을 해야 하고요.

연출로서는 연극은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한살림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오는 대본을 받으면, 이게 진짜 한살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겪고 있을 고통이 맞나? 혹은 이 문제가 가장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는 고민을 해요. 어떤 인간의 당사자성을 훼손하거나, 너무 대표화하지 않고, 진짜 현실에 있는 인간의 삶을 너무 소비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게 연출로서 혹은 작가로서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 외에 연극인으로서는 일이 너무 많아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일을 좀 분담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샘이 : 요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기획이 무엇인가’예요. 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원 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결국 행정 처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증빙, 소품 구매, 계약서 작성, 교부신청서부터 시스템 접속 등 이런 다양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하고요. 예산을 잘 쓰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들이지만, 이게 나의 롤인가?

고민하게 돼요. 현장에서 이 과정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게 이 일을 해야 하고 또 잘 해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원 사업이 없다면 어떤 창작이나 우리의 활동을 보여주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다른 부분은 기획 쪽으로 아이디어가 자꾸 꿈틀거릴 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좋아서하는 기획’이라는 페이지를 질렀어요! ‘전주에 한번 가봅시다!’ 하고 모으고 있어요.

슬기 :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부분과 기획 아이디어를 내는 작업은 다른 감각이 쓰이는 것 같아요. 샘이 님은 ‘다른 뇌’를 쓰는 것에 대한 혼란, 어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나요?

진진 : 되게 공감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프로젝트 사업을 맡아서 매니지먼트를 했었거든요. 내가 해야 할 행정은 많았지만, 기획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오히려 행정에 더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까, 아 나는 서류 처리 기계인가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행정 처리하고 있으면 기획을 잘 내달라고 압박을 받기도 하고요. 제가 제출했던 기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경 요청을 받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획할 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샘이 : 말씀하셨듯이 기획이 담당하는 역할이 많고 그 범위도 넓어서 어려워요. 경영지원, 홍보, 세금 등등. 그런데 각 분야가

6 (샘이 님이) 하고 싶었던 기획을 하나씩 시작해보고자 만든 프로젝트. 각 지역의 여성, 청년, 예술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 채널을 개설하고, 1일 답사의 형태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감상 리뷰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기획이 펼쳐질 예정이다. (참고 URL: <https://www.facebook.com/semi.s.plan/>)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고, 하려면 정말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익으로 이어지거든요. 조금 전에 지원 사업은 저희한테 너무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원 사업들이 넉넉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보다 자본 지원이 커진다면, 말씀드린 영역들을 더 전문적으로 추진해보거나 더 잘해볼 수 있을 텐데, 생각해요. 진진님이 말한 사업 등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진 : 제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넣고 결과적으로 일이 정말 많아질 때도 있거든요. 지원 사업을 넣어보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윤지 : 서울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두 군데에서 공연과 관련된 정기 공모가 일 년에 한 번씩 떠요.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하고 일 년에 딱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서 무조건 시도를 해야 하고요. 선정되지 못하면 공연이나 예술에 관련된 더 작은 단위의 다른 사업들을 여러 개 신청해야 해요. 가장 크게 고려한다면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일까요. 그게 안 되면 밥이나 식사라도 할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일을 하러 가야 하죠.

샘이 : 제가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데에는 이런 요소도 영향을 줬어요. 우리가 하는 활동에서 물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지원 사업들이 매우 중요하고 씨앗이 되는 자본이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요. 지원 사업의 경우 연차 등의 조건들도 있고, 매년 될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연극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수익 또한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창업과 경영을 배워서 연극이 디디고

있는 세상을 넓혀보고 싶기도 하고, 네트워크 등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이게 제가 자꾸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이유기도 해요. 저는 몸이 하나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오를 때 고민이 돼요. 이게 극단 Y 기획 역할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저 최샘이의 고민인 것 같아요!

소리 : 기획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역할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기획이 진행하는 일들이 정말 다양하고, 저번에 미담에서도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기획은 약간 ‘맨땅에 헤딩’이면서 동시에 각자 기획의 정의가 다 다르기도 하고요. (샘이: 네, 맞아요.)

윤지 : 샘이 님의 단점이자 동시에 장점인데, 잘 질러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샘이는 한 명인데, 일을 대여섯 개를 질러놓은 후에 너무나도 힘든 달을 보내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건강하게 지속할 건지 이게 과제인 것 같아요.

샘이 : 맞아요. 정말 되게 중요한데, 컨트롤, 균형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소리 : 여섯 개나 하시는군요! 샘이 님이 어떤 걸 지르시는지 궁금하네요!

윤지 : 올해는 대학원과 극단 Y만 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컴퍼니 기획도 하고, 또 마약 퇴치 관련된 활동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좋아서하는 기획’도 하고….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샘이 : 잘 거절도 못 하고요. 앗, 저희 연극(제목)이 <거절하는

방법>인데(웃음). 그런데 제가 ‘아닌 게 분명한 제안들’은 거절을 잘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못한다고 분명하게 거절하는데, 오는 제안들이 다 좋은 거죠!

소리 : 거절이 어려운 이유네요.

윤지 : 공연을 괜히 했죠…. 아무도 거절을…. (모두 웃음)

운동가? 활동가? 직업인?

슬기 : 얼마 전 ‘애프터 미투’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계에서 성폭력 반대 활동하시는 영화감독님이 나와서 내가 활동가인지 감독인지 모르겠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윤지 님도 그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윤지 : 제가 <344명의 쌍년들> 공연하고 제가 연극인인지 활동가인지 운동가인지 잘 모르겠다, 예술로 운동을 하는 건지 운동으로 예술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고 그런 말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헷갈리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는 해요. 저는 일단 연극하는 사람으로서 운동도 연극으로 하는 거고 어떤 연극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연극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너무 확실하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운동들은 결국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결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술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시의적인 주제를 다룰 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 피켓을 들지 않고, 단식투쟁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연극으로 예술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이런 죄책감들을 조금 가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활동가분들은 저희가 하고있는 영역을 지금처럼 해주면 좋겠다고 하세요. 어쨌든 본업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성질, 정체성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는 연극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떨 때는 운동의 성격이 90퍼센트까지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로가 다르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아 : 저는 페미니즘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제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이라는 좀 별개가 되는 경험들이 많거든요.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페미니즘 독서모임을 참여한다거나, 주말에 시위에 나간다거나 이렇게요. 일하러 직장에 갔을 때는 한쪽의 스위치를 꺼놓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는 고민들도 있어요.

샘이 : 자길 보호하는 장치죠,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소리 : 어, 따뜻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두렵기도 한가요?

진아 : 극단 Y는 기존 사회에 균열을 내는 언어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활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여쭙보고 싶어요.

윤지 : 샘이님은 주로 싸우지 않나요?

샘이 : 아니에요. (웃음) 저 싸우지 않습니다! (윤지님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나요?

윤지 : 네, 있죠. 2017년도에는 기획서 같은 곳에다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말을 쓰면 바로 떨어질 것 같았고요.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신상을 털려서 누가 돌 같은 걸 갖고 와서 배우들에게 던질까 봐 겁나기도 하고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미투가 터지면서는 분노가 두려움을 이겼던 것 같아요. ‘페미니즘 연극을 한다’하고 더 말해야지 하는 생각도 했고요. 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표를 구매해서 혐오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세상에 균열을 낸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떤 희망이나 바람 같은 거라서 어딘가에 딱 맞선다는 감각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건 기본값인데 이 과정에서 내가 나를 망가뜨릴까, 하는 두려움이 지금의 저에게는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이 활동에서 이 환경을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들이고 있는 어떤 노력, 시간들이 점점 축적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쌓아온 어떤 것들이 나만의 꿈이나 판타지였는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환경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건지?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계속 동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해나갈 건데 이 안에서 내가 나를 망가뜨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존하면서 가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소리 :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과 생활이 밀접하기도 하고, 일하는 자신과 일상의 자신을 딱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요.

샘이 : 이 질문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혹시나 우리가 쓰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세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두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윤지 님이 쓰고 보여주는 무대가 정말 너무 좋아서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는 마음도 들었고, 성덕처럼 따라다니다가 옆에 있게 된 거라서요. 아, 그런데 세상을 바꿀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 소중했고, 이걸 보면 나처럼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래도 ‘요즘 내가 잘 말하고 있는 건가?’ 하는 두려움은 생겨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휩쓸려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극단 Y의 작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 같은 것들이요. 제가 책을 꾸준히 읽고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태되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더 철저히 그리고 더 바르게,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 게을리하면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잘해야겠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소리 : 그런 두려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나 살피면서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든지도 여쭙보려고 했는데(웃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샘이 : 계속 살피보고 공부해야겠죠!

윤지 : 삶의 태도나 자신의 가치관과 같은 건 두렵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떤 두려움은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혹은 모두의 시간이 좀 다를 뿐이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진아 : 맞아요. 안 할 것 아니니까!

윤지 : 맞아요. 갑자기 반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돌아 돌아서라도 어떻게든 어느 쪽으로, 나의 태도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제가 “나, 안티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웃음).

진아 : 그러게요. 그걸 극복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두 동감)

요즘 당신의 ‘와이’는?

소리 : 요즘 많이 생각하는 ‘와이’는? 눈길이 가는 주제나 이야기, 질문이 궁금해요!

윤지 : 소재적으로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기도 한데요. ‘달리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달리는 여자, 운동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좀처럼 글을 쓸 시간이 없어서 당장 실현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요!

요즘 가장 큰 관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예요. 내 상태와 정신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함께 챙기면서 갈 수 있을지가 제 이슈예요.

샘이 : 너무 많은데.... 어쨌죠, 진짜? 일단 ‘와이’라고 한다면, 제가 화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고 있는 세상에서 A부터 Z까지가 다 문제 덩어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윤지님과 비슷하게 개인의 정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건강하면 좋겠다 싶어서 운동해야겠다고 2년째 생각하고 있어요(웃음). 지역+여성+청년+예술을 계속 또 직접 응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는 ‘좋아서하는 기획’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사이에서 시간 분배나 역할 분배, 균형을 잘 잡고 싶어요. 저, 저의 활동, 제 주변을 위해서!

샘이 : 여러분들의 ‘와이’는요?

소리 : 역으로 질문을 받으니 머릿속에 엄청나게 다 몰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웃음). 한 달 뒤에 계약직이 끝나거든요. 하고 싶은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한테도 인정받으면서도 나부터도 납득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못 찾겠어서 고민이 돼요. 답없는 고민이면서도 결국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진아 : 최근에 미담에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이 너무 없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활동공간, 물리적인 공간이 많이 없고요! 극단 Y를 보면 물리적인 공간 이외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니까 또 다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공간이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어요.

윤지 : 이야기하다 보니 작년에 극단 Y에서 공연했던 ‘픽킹젠더’가 생각났어요. ‘픽킹젠더’는 안전한 공간,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공간 자체가 누구나 환영하고 싶어서 만든 공간이지만, 사실 누구나 환영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무서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 환영하지 못하겠는 사람들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확장해나갈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나 공동체든 늘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헤어지고 찢어지고 다시 생기고 찢어지고를 반복하는데, 이 반복됨에 지친 인물이 공간을 만드는 설정이었어요. 이런 문제가 없는 곳은 없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누구나 환영받았으면 좋겠어, 누구나 환영한다는 건 무서워.”
이 대사가 생각나네요.

슬기 : 제가 다녔던 회사에 성폭력 가해자가 있었거든요. 그 가해자가 징계를 받고 해고가 되었다가 복직 투쟁을 열심히 해서 완전 복직이 되었는데, 그 팀에는 피해자가 있으니깐 못 가고 다른 팀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학생 때도 동아리 선배들이 사건을 저지르면 배제되고 나가기만 했지 다시

돌아온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해준 경험이 없어서요. 주변에 물어봐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같은 업계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수도 있는데, 이것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요?

윤지 : 이걸 내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이 해결해야 할 몫이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 담론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더 있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달랐을 거고 복직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회사 내에서 팀원들을 따로 면담했을 수도 있고 주변을 고려한 시스템이 더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퐁’ 처리된 게 그 업계의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고용주가 아니니까 그 사람을 이직시키거나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에 현실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미투 때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던 사람들을 종종 마주쳐요. 그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뚫려있는 구멍들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마주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나다니면서 눈치를 보거나, 인사하기 서먹해하거나 어떤 태도에서 껄름칙함을 보인다거나 한다는 걸 느껴요.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죄책감, 떳떳하지 못함인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제가 더 잘 살자고 마음먹어요.

샘이 : 아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회사라면 회사의 내규, 문화, 시스템을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연극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런 일들이 이야기된 후에, 다음번에는 가해자가 돌아온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정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윤지 :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주쳐서 불편함이 느껴질 때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 하고요. 이 불편함이 당연해지는 건 안 되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라서 어려운 거니까요. 이 불편함이 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돌봄과 균형

진아 : 이런 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아쉽게도 이제 약속드린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쉬실 때 주로 어떤 걸 하시는지, 두 분의 취미를 여쭙봐도 될까요?

진진 : 창작자는 이런 걸 하면서 쉰다!

진아 : 너무 거대해졌어요(웃음).

윤지 : 웬지 막 전시관에 가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모두 웃음) 저는 워커홀릭이어서 잘 쉴 줄을 모르는 편인데 책 읽는 거,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어떤 소재에 꽂히면 해당 소재에 관련된 영화, 책, 논문 등 콘텐츠를 다 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요. 그 외에는 ‘일한다’가 저한테는 기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서 한 달 전부터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는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청각과 관련되니까요! 평소에 글자를 조합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것과는 좀 다른 감각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뇌신경학자 선생님께 역할 워크숍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배우들이 어떤 피해성을 지닌 캐릭터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면 그 캐릭터에서 헤어 나오는 게 좀 힘들거든요. 공연 기간에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요. 그때 어떻게 해당 역할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공연 때 쓴 것과는 다른 감각을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연에서 움츠려있는 자세를 반복했다면 일상에서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자세를 의식적으로 반복한다든지, 들이마시는 쪽이라면 내뿜는 걸 한다든지 반대쪽 신경을 사용하는 식으로요. 그 말이 인상적이어서, 저도 일할 때 쓰지 않는 감각을 일상에서 써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달리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일할 때 하지 않는 걸 요즘 해보기 시작했어요.

진아 : 저도 비슷한 이유로 복싱을 시작했어요!

소리 :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편인가요?

진아 : 샌드백을 치다 보면 화가 좀 풀리기도 하고요. 운동할 때 오는 통증 있잖아요,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스트레스 해소하는데에 좋아요. 저도 글을 쓰는 게 주로 하는 일이어서 운동할 때 쓰는 감각은 정말 반대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진진 : 겨울에 운동하고 나면 공기는 엄청 추운데 나는 엄청 뜨거워져 있으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감각을 느끼기도 하고요.

윤지 : 아! 그리고 운동은 생각보다 조금 쉽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은 해도 해도 잘 안 되는데, 30분 뛰면 내가 오늘 30분이나 뛰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육이 아프면 내가 해냈다는 어떤 증표 같기도 해요. 땀이 흐르면 ‘나한테 땀이 흐르다니, 매일 노트북 작업만 하는 내가 땀이 날 만큼 운동을 했구나.’ 그런 성취감이 있어요.

샘이 : 기획은 안 쉬어요! 기획은 다른 일 하면서도 계속 생각해요. (모두 웃음) 정말 저 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윤지 : 아, 샘이 님은 넷플릭스를 몇 배속으로 봐요.

샘이 : 한 번에 몰아보는 걸 좋아해서요! 시간나면 해야 할 게 너무 많기도 하고요. 애들이 가끔 “너 뭐하는데 이렇게 바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집에 박혀서 혼자 있는데도, 따로 하는 게 없는데도 계속 바빴어요. 저는 되게 부산한 사람이고, 시간을 쪼개서 계속 이것저것하고 움직여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딱히 쉴 때를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가를 즐기는 사이클이 정확했을 때는 저녁에 밖에 놀러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19도 그렇고 즐기게 어려워졌어요. 두 시간을 내서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그나마 즐길 수 있는 거였는데! 자꾸 방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쉴 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이 취미를 정말 일하지 않으면서 빠져서 즐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맨날 켜놓고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레퍼런스로 본다든지 이렇게 돼서요. 요즘에는 ‘내가 정말 쉬는 시간이 있나? 내가 쉴 때는 뭘 하나’라는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윤지 : 쉬지 못한다, 쉴 때 뭘 할지 모른다는 감각이 또 스스로 굉장히 현타가 오거든요. 남들은 쉴 때 뭐 하는지 제일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 학원 끊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안 끊으면 어차피 나는 그 시간에 일할 테니까! 그냥 학원에 가자! 연극을 하는 시간을 즐기자! 이렇게요.

진아 : 그런데 그거 엄청난 도전 아니예요? 다른 곳에 시간을 낸다는 것부터가 엄청난 용기고요.

윤지 : 저는 살면서 시간이 제일 아까웠거든요. 시간이 저한테 너무 귀해서, 어릴 때는 연습실에 배우들이 늦게 오고 하면 화가 나고 그랬어요. 내 귀한 시간에!!! (모두 웃음) 틈틈이 일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쪼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느껴요. 시간을 어느 정도 내게서 버려두면서 생각을 덜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공연을 앞두고 피아노 학원에 다니지는 않았을 텐데!

소리 :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저는 시간을 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을 한번 낭비하기 시작하면, 저는 통제하는 방법을 못 찾겠거든요(웃음)!

윤지 : 아니예요.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진진 :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화를 어떻게 참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윤지 : 저는 화가 원래 잘 안 나요.

샘이 : 신기하다. 진짜 화가 안 난다고요?

윤지 : 네. 저 화내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샘이 : 그러게요. 그래도 부글부글하고 이럴 때는요?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저는 화를 풀지 않아요. 화내요! 그런데 무슨 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진진 : 일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다들 늘어져 있을 때의 화요. 그럴 때 저는 화가 많이 나서요.

소리 : 일에서는 화 말고 다른 선택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샘이 : 저는 저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긴 한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기관의 정책이나 시스템 같은 것들이어서요. 전화해서 화가 난 이유나 원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론화를 하거나요!

윤지 : 페이스북에 몇 월 며칠 최샘이가 어디 전화했음! 시정요구했음! 앞으로 주시하겠음! 이렇게. 일을 제대로 안 해서 화가 났다면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요. 그게 안 되면 다시는 같이 일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화가 날 때는

저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예요. 제 마음에 여유가 있거나 컨디션이 괜찮으면 왜 일 안 했어?가 아니라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먼저 다가가게 되고요. 정신건강이 쇠약해지면 화가 나고 그러면 그때 바로 ‘요즘 내가 상태가 안 좋구나’하고 알게 되는 편이에요. 이미 한 두 번 신경질을 냈다면 깊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제가 건강하지 않아서’만은 아니겠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일을 안 해준단든지 여건이 너무 받쳐 주지 않는단든지 이런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사실 내가 건강하면 다 괜찮거든요!

진진 : 마음도 몸도 운동해야겠네요.

진아 :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귀한 시간을 미담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단 Y의 차기작인 ‘탈피’도 꼭 보러 가야겠어요!

안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

‘안전하다, 새롭다’를 함께 만들어가며 공유한다는 건 어떤 감각일까? 미담도 앞으로 여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 맺고 연결되겠지. 그때마다, 누군가 미담을 만났을 때마다 ‘아, 여기는 편안한 공간, 안전한 공동체구나’ 그런 안도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와 공간이라는 건 결국 ‘절대적으로’ ‘언제나’ ‘평생’ 안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똑딱, 하고 안전함이 단번에 만들어질 리도 없고, 그 안전함이라는 것도 계속 의미가 변할 테니까. 다만

그 안전함을 함께 만들자는 다짐 그리고 서로의 안전함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점검해나가자는 다정함만이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엔지 극단 Y와의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함께 저 멀리 자전거를 타고 달려나가는 풍경이 떠올랐다. 페달을 굴려 뽕뽕 달려나갈 수 있게 녹이 슬지 않는 기름칠도 해줘야겠고, 타고 달리면서 서로의 얼굴을 살피기도 해야겠지. ‘안전한 경험은 서로 노력하며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 극단 Y의 그 다정하고 안전한 태도에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어떤 글⁷에서 ‘미투운동과 페미니즘의 영향이나 성과가 지금 당장 만족스러울 정도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공연계가 다시 미투운동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공연계도, 관객도 모두 알고 있다.’라는 문장을 만났다. 조금 지난하고 어쩌면 너무 천천히 가서 바뀐 건 딸랑 ‘하나’, 단 ‘한 장면’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극단 Y가 만들어가는 안전한 언어와 공간, 그것이 존재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앞으로 그들은 또 어떤 언어와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그들이 만드는 현장에 언제나 버전발로 뛰쳐나가 그들의 뒤를 받쳐주고 밀어주고 싶다!

7 미투운동(#Me_too) 이후를 질문하다.’ (출처: CY Stage 네이버 블로그, URL: <https://m.blog.naver.com/cystage2017/221982454770>)

권리장전

극단 Y

하나, 나는 나 자신을 우선순위로 둘 권리가 있다. 즉,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언제든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작업을 중단했을 시 가급적 대화를 제안한다.

대화를 제안하고 싶지 않다면 퇴장할 수 있다.

하나, 나는 누군가가 외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발언을 하거나 위계를 작동시킨다고 느낀다면(모든 혐오발언 포함), 그를 저지하거나 나의 입장과 의견을 발화할 권리가 있다.

하나, 성별 · 나이 · 경력 등에 의해 생기는 위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유의하며, 모든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 작업이 시작되기 전 반말/존댓말 및 호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작업에 앞서 반말/존댓말 및 호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하나, 나는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작업 전후의 밥/술자리 등의 자리는 의무가 아니며 서로에게 강요할 수 없다.

하나, 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완벽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타인의 역할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역할에 따른 권한을
존중하되, 한 사람에게 과중한 책임과 업무가 일임되지 않도록
점점하고 소통한다. 구성원들이 나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함께 토의한다.

하나, 나는 연습 및 공연에 관련된 약속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시, 구성원 전원에게 최대한 빨리
상황을 공유하고 시간을 조율한다.

하나, 나는 공연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타작업자들을 존중한다.
평가하기보다는 질문하고 제안한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험오 발언 및 욕설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나는 공연제작과정 중 이야기하게 되는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연습실에서 알게 된 타작업자들의 이야기를
외부에서 발설하지 않는 것을 약속한다.

하나, 나는 공연제작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리인을 내세울

권리가 있다. 대리인은 당사자가 외부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의 대리인은 당사자가 지정한 내부의 구성원과 함께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조율할 수 있다.

하나, 나는 공연제작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을 시 문제와 관련된 교육 및 워크숍(ex.성폭력예방교육)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공적인 제작비로 지출한다.

하나, 나는 공연제작과정 중 상해가 발생했을 시, 공연(연습)과 연결된 공적인 사안이라면 이를 위한 치료비는 공적인 제작비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 및 치료비의 범위는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이에 의견이 분분하다면 외부의 자문을 구한다. 단, 자문은 전원동의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모든 상황에 있어 공적인 제작비가 없을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연극 '거절하는 방법' 후기

거절을 생각한다

소리

<제1강: 거절하는 방법>을 보면서 자연스레 내가 거절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땐 왜 거절이 어려웠을까? 지금도 왜 거절은 어려운 걸까? 거절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봐, 상대방에게 실망이나 상처를 안겨줄까 봐, 미움받을까 봐, 혼자 남겨져 외로울까 봐,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을까 봐, 지금 혹은 들어온 상대방의 제안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워서 등등. 한꺼번에 밀려드는 수십 가지 이유로, 우리는 멈칫 거절을 머뭇거렸을 것이다. 선우여고 1학년 네 명은 이제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되었을까? 그래서 거절을 잘하게 되었을까?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거절을 잘하는 편인지 궁금하다. ‘거절’이라고 검색하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 센스 있게 거절하는 방법, 메일로 거절하는 방법,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방법 등 정말 많은 거절의 방법론에 대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이 글을 쓰는 나도 거절을 그리 썩 잘하는 편은 아닌가 보다. 그도 그럴 것이, 거절하는 방법은 배워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다. 누구에게 물어본다 쳐도 그게 ‘정답’일지 의문이다. ‘거절하는 방법’도 이 정도인데, 거절당하고 나서 잘 지내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어렵사리 한 거절을 거절당한다면? 상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여기 복잡하고 다난한 ‘거절’에 대해서 고민한 연극이 있다. 바로 극단 Y의 연극 <제1강: 거절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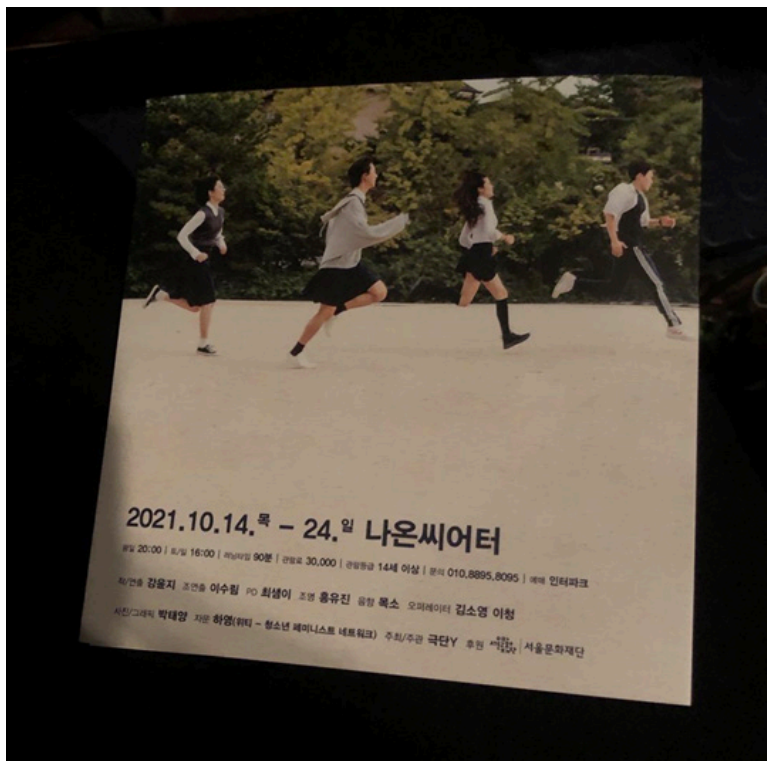


연극 거절하는 방법: 후기

어느 날 리아는 운동장에서 매일 열심히 달리는 현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리아는 현의 단짝 미소로부터 현이 거절을 못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고, 현의 (찐) 진심이 알고 싶은 리아는 친구 선주에게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을 해보자고 부탁한다. 그렇게 한 교실에 모이게 된 리아, 선주, 미소, 현.



유쾌하고 인기가 많지만 그만큼 더 명랑한 척 굴 때도 있는 리아와 공부를 정말 잘하지만, 학교에서 유일한 친구인 리아가 말을 걸지 않는 게 상처인 선주, 이름이 미소라서 주위로부터 부담과 압박을 받는 미소, 자신의 페이스를 찾는 데에 열중하느라 가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현. 그들은 각자 거절을 연습해보며 자신을 알아가기도 하고, 스스로와 상대방을 이해해보려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기도 한다. 눈 딱 감고 거절을 해내기도 하고, 거절을 회피하거나 거절당하기도 하는 그들. 이제는 34살이 된 넷은 거절이 처음이었던 17살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편지를 쓴다.

<제1장: 거절하는 방법>은 미숙했던 뭐든 서툴렀던 그래서 반짝이던 17살의 나에게 괜찮다고, 혹시 지금도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담담하게 건네는 편지 같다. 빠르게 지나가기만을 바라던 기억도 있었지만 이제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라고 말이다.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순간도 지나갈 거라고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고 흘러서 현재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때가 되어가고 있다고 소중함을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거절을 생각한다. 거절하지 못할 부탁을 강요받는 순간, 거절해야만 했던 부탁, 내가 거절을 고민하는 사이 누군가를 혹은 나를 상처 주진 않았는지를 생각한다. 앞으로도 완벽하고 무해한 거절을 하고 살아갈 수만은 없겠지만, <제1강: 거절하는 방법>의 마지막 대사만큼은 내게 오래도록 남아 매번 다른 무언가를 말해 줄 듯하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연극 '탈피' 후기

탈피를 보고나서

슬기

연극
후기

<제1장: 거절하는 방법>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극단 Y의 이야기는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과 소재를 통해 깊은 빠침과 슬픔을 느끼게 해준다. 소진의 전 남자친구가 등장했을 때, 소극장을 가득 채우던 관객들의 탄식이 생생히 기억이 난다.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전에 만났던 ex-한남에 대한 경험 때문일 것이다. 극에 나오는 남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려 들거나, 희롱하거나, 가스라이팅 하거나, 화를 낸다. 내가 답답했던 건 이걸 보고 뭔가 느꼈다면 ‘남자만 너무 나쁜 사람으로 표현해서 기분 나쁘다’라든지 ‘저렇게까지 나쁜 남자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다. 근데 <탈피> 후기를 좀 검색해 봤더니 그런 글이 보여서 더 화가 났다. 이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

2019년 영등포에 살 때, 타임스퀘어에 주렁주렁이라는 실내 동물원이 개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화가 났던 기억이 있다. 어떻게 2019년에 실내 동물원을 개장할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과 어떻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곳을 갈 수 있지?라는 생각. 파는 사람도 문제지만 팔아주는 것도 문제 아닌가. 펫숍 소비하는 사람들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계속해왔던 것 같다. 약자의, 약자의, 약자에게로 폭력이 끊임없이 전가되고 있다. 소진이 마지막에 동물들을 풀어주고 무대 뒤편의 벽지를 뜯어낼 때, 소진도 드디어 허물을 벗고 탈피를 마친 것이다. 이 연극이 빠침과 슬픔을 넘어 연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도 그 까닭이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더 많은 약자와 연대해야 하는 이유다.



연극 '탈피' 후기

억압으로부터의 탈피

진아

진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정해져 있었다. 여자아이기 때문에 태권도 학원보다는 리듬체조나 발레를 다녀야 했고,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든 동생에게 양보해야 했다. 특히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삶의 전반에서 나의 행동을 규정했다. 여성이기 때문에 밤늦게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짧은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등등. 지하철에서 낯선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해도 집에 돌아오면 ‘여자애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서 그렇다’며 혼나기까지 했다. 20세 성인이 되고 나서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바꿔보고자 하는 활동에서도 ‘어린’, ‘여성’이라는 수식어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녔다. 어려서 잘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고, 여성이니까 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내가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나를 규정하는 무언가에 나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어느 순간

억압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린’, ‘여성’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정체성이 나의 한계를 만들고, 행동에 제약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물며 협동조합이라는 공간에서도 나는 어리다는 이유로 임원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협동조합의 의미와 가치가 나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나를 자극했다. 사회가 규정한 정체성이 나의 행동에 제약을 만들기 시작하자 나는 이것이 ‘억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극단 Y의 신작 ‘탈피’를 보며 이런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던 이유는 ‘탈피’가 낙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물과 여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연극에서는 동물원에 갇혀 있는 4.6m의 알비노 버마 비단구렁이와 그녀를 돌보는 소진의 연결을 그려낸다. 연극의 배경은 동물원인데, 상품성이 떨어지는 구렁이가 탈피하는 과정에서 짐짝 취급되고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동물원을 관리하는 직원인 소진은 구렁이의 탈피를 돕기 위하여 사비를 들여 진료를 받게 하기도 하고, 동물원 문을 닫는 밤에도 구렁이를 돌보며 밤을 지새기도 한다. 연극에서는 이 둘을 억압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소진의 학위 논문을 그대로 자신의 졸업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전 남자친구라든지, 소진을 아내로 맞고 싶다며 계속해서 집착하는 수의사라든지.

그들을 억압하는 상황에는 나름의 ‘이유’라는 것이 있다. 구렁이가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을 위해 좋다는 것, 전 남자친구의 학위 논문을 도우면 다시 연구실에 복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 수의사와 결혼을 하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것. 여러 이유가 이들이 억압 속에 있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들의 대화를 듣다 보니 마음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지만, 나와 내 주변 친구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 구렁이와 소진, 그리고 나와 친구들을 둘러싼 세계는 좁고 닫혀 있다. 이 좁은 세계는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며, 우리를 더욱 옥죄어 오지만, 정작 우리는 이곳에서 안전을 느끼지 못한다. 억압이 정점에 달하던 시점, 소진과 구렁이는 마침내 ‘연결’되고, 소진은 구렁이의 탈출을 돕는다.

연극을 보는 내내 구렁이와 소진의 삶이 나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어린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누군가를 수동적인 존재로 낙인 찍어 버린다. 소진과 구렁이가 동물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압’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꾸준히 내가 삶에서 겪은 억압의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 낙인된 존재로서 뱀과 여성이 연결되듯,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고, 서로의 용기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미담은 그런 공간이기도 하다. 내가 겪은 억압을 함께 이해하는 이들과 좁고 닫힌 나의 세계를 벗어나 보자고, 같이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작은 용기를 만드는 곳. 사회가 나를 억압하는 이유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아닌, 내가 억압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내는 곳. 특정 정체성으로 낙인되어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



함께 연극을 보자고 제안한 이유

진진

문화생활로 여겨지는 여러 활동 중에, 연극에 대한 선호도는 바닥과도 같았다. 내가 경험한 혜화의 연극이란 웃음만을 위한 억지웃음 코드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지점들이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곰곰이 고민해보니 내가 연극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된 과거의 경험이 떠올랐다. 단원들이 하는 잡담들을 우연히 길을 지나가면서 듣다가, 앉아있는 관객에 대한 외모를 평가하는 언행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극이라고 하면 불편하고 꺼리게 되는 문화생활이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연극을 보러 가자고 선뜻 제안하게 된 건,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연극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각자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미담에 제안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후자의 측면이 더 컸다. 청년 모임이라고 하여, 반드시 독서 모임이나 연사를 초청해서 인사이트를 얻거나 좌담을 열거나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연극을 할 수도 있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볼 수도

있다. 나는 청년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지양하는 편이다. 청년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사회를 해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의 위험 감수를 해보고 싶었다. 사회문제를 바라볼 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느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우리 미담 구성원들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진부한 내용이 아닐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연극에 들어가는 순간 그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몰입감 있게 캐릭터를 연기한다고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다. 마지막 장면에서 캐릭터들은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선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맺혀 있는 눈물들이 단순히 연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감정이 이입되는 연기는 때로는 나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다. 그래서 연극에서 요구하는 연기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감정 소모로 이어질 수 있고 연기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극단 Y 배우님들의 연기를 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감정이 떠올랐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들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느꼈던 감정들을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진 않는다. 오히려 감정에 몰입하지 못하고 넘겨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감정에 몰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등등.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자주 감정을 억압하곤 한다. 하지만 이게 나쁘기만 한 걸까? 감정을 억압하기에 유지되는 점도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그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때도 있고, 일하면서 그 감정에 몰입하게 되어 되려 손해를 보는 때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겹겹이 쌓인 우리의 감정들이 홀로 응어리지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모여 앉아서 솔직하게
미담에서 이야기한다. 우리의 생활은 어땠고 감정을 억압하며
힘들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2.

김공룡과 친구들

한 개인이 다른 두 명과 연결되기만 해도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오늘도 내가 만드는 작은 연결이
달을 곳들을 상상하며,
함께 하는 이들을 생각한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지구상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생태위기에 맞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깁니다.
우리는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와 기업으로 하여금 과감한 온
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전환을 이끌어내고,
구호로 외치는 대안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운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미담에서는 청년기후긴급행동(김공룡과 친구들)에서
주관한 <우리는 마주보기로했다> 전시를 다녀왔다.

전시 '우리는 마주보기로 했다' 후기

연결되고 싶어서

기현

기후위기와 나의 연결고리는 2019년에 다시 이어졌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 산불 등 기후재난을 피부로 느끼고 화면 너머로 보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던 중, 김한민 작가의 ‘아무튼 비건’을 읽게 되었다. 짧은 책이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인식하던 기후위기와 그 원인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로 보여주는 책이었다. 나의 생활, 특히 먹는 것이 다른 생명과 나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육식 중심의 식생활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동물권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했다.

비거니즘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청년 식문화 프로젝트팀 ‘벗발’에 함께 하게 되었다. 식문화와 기후위기를 연결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나 스스로 ‘기후위기 활동가’ 혹은 ‘활동가’라고 소개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 이유는 내가 앞에

나서서 직접 목소리를 내거나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직접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채식을 지향한 지 3년이 된 지금은, 채식을 지향하기를 선택하고 이를 주변에 함께 하자고 얘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작업보다 어느새 혼자만의 작은 고민이 될 때가 많았다.

‘이건 분리수거 안 되는 재질이라 일반쓰레기네, 역시 이진 문제야.’ 혹은 ‘혼자 먹을 때만 비건으로 먹어야겠다.’ 등 개인적으로 마주한 선택 앞에서만 고민할 뿐 그 고민을 주변과 잘 나누지 않았다. 이야기를 회피한 것은 아니지만 먼저 물어오거나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기후위기와 나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관성적으로 움직이던 나에게 청년기후긴급행동, 모닥, 비질의 기록 전시 <우리는 마주보기로 했다>는 새로운 연결을 보여주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되어’ 있었다.

전시에 담긴 활동가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시화하는 작업이었다. 비질에 참여하는 이들은 축산업과 어업 등에서 비인간동물들이 착취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그들의 눈빛을 담았다. 약 10분 내외의 영상에 담긴 물살이¹와 돼지, 소, 등 축산 동물들의 눈빛은 너무나 생경했다. 채식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페스코 혹은 플렉시테리언 정도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생각했던 나에게 물살이와의 눈맞춤은

1 물고기¹에 있는 ‘고기’라는 단어는 ‘식용하는 동물의 살’이라는 뜻으로, 살아 있는 생물을 칭할 때 ‘고기’라고 부르는 것이 종차별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물살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2021 동물권 행진: 물고기 아니고 물살이, 동물해방물결 <https://donghaemul.com/story/?idx=249>)

강렬했다. 언젠가 보았던 인간의 건강을 위한 백신 개발에 사용되는 투구게²의 피를 뽑는 장면이 떠올랐다. 투구게를 일렬로 긴 책상 위에 끈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빨대처럼 긴 무언가를 꽂아 투명한 유리병에 파란 피를 뽑는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투구게 앞에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이 앞에 서서 피를 뽑는 그 모습이 SF 영화에나 나올 것 같았다. 그 사진을 보거나 혹은 이야기로 듣는 것은 열 마디 말과 지식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었다.

<김공룡과 친구들>은 두산중공업의 베트남-봉양2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와 활동을 기록했다. 당장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발전소 주변에 살아가게 될 이들이 받게 되는 피해와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영향을 상상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도 김공룡 혹은 그 친구 중 한 명이다. 김공룡은 기후위기긴급행동의 마스코트인데, 우리도 기후위기로 멸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귀염뽀짝한’ 모습으로 전한다. 더 친근하게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활동 환경은 더욱 넓어진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기록 프로젝트 ‘모닥’의 글이었다. 내가 이상적으로 그리던 활동가들의 모습과 ‘난 이렇게는 못 해.’라며 경계를 그었던 ‘활동가’의 이미지와는 달리 솔직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처음엔 알고 싶다는 궁금증만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³’ 라는 한마디가 와

2 인간이 미안해...백신 위해 ‘푸른 피’ 뽑히고 죽어가는 투구게, 나우뉴스,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18601005>

3 정의감 넘쳐서 기후단체에 들어온 건 아닌데요...’ (조남훈) <https://brunch.co.kr/@416f50cf1ad743f/2>

닿았다. ‘기후위기는 과학자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해야만 아는 주제도 아니고, 절대 바꿀 수 없는 재앙도 아니고, 평범한 여기 지금 우리의 삶이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이 있어서 계속 이어갈 힘을 얻었다.

내가 비거니즘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식문화 프로젝트 ‘탐’으로 움직이는 것도, 미담에서 ‘먹거리’ 이야기를 함께 했던 것도, 결국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기에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음을 다시 깨달았다.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고민하고 함께하는 것이 전부였다. 사소한 개인의 선택에 관한 고민이 너무나 작아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더 많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런 고민을 작게나마 나눌 때 변화가 생긴다.

이젠 마음만 먹으면 연결될 수 있는 세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한 번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직 얘기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활동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연결된 것을 마주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사람, 그리고 연결하는 사람’이다. 전시를 다 본 후에 내가 남긴 방명록은 ‘우리가 모두 활동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였다. 한 개인이 다른 두 명과 연결되기만 해도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오늘도 내가 만드는 작은 연결이 닿을 곳들을 상상하며, 함께 하는 이들을 생각한다.

전시 '우리는 마주보기로 했다' 후기

마주보는 사람들을 만나다

소리

이
문
아
면

2022년 새해가 밝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담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19일간 문화공간 길담에서 열린 ‘우리는 마주하기로 했다’ 전시를 보러 다녀왔다. 그곳에서 자신만큼이나 자신을 포함하는 세상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기록 전시는 청년기후긴급행동 ‘김공룡과 친구들’이 주관하고 비질 활동가 헤린이 협업하여 기획한 전시로, 처음 이들의 활동을 접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호기심이 일 듯하다. 나도 처음엔 그랬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2020년 1월에 결성된 기후운동단체다. 그들은 비폭력직접행동을 조직하여 움직인다. 비폭력직접행동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여 바로 행동으로



나서는 일로, 그들이 ‘직접행동’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더 나은 지구를 위해서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생명이 가득한 지구에 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상상을 펼친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김공룡과 친구들’이라는 귀엽고도 당찬 별명을 가지고 있다. ‘김공룡’은 내 친구 김00처럼 가까우면서도 동시에 공룡처럼 인간도 멸종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겨있다고 한다.



‘친구들’이라는 이름은 함께 하고 있다는 든든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는데, ‘고민 끝에 지어진 멋진 이름이구나!’하고 감탄이 나왔다.

전시를 둘러보며 ‘김공룡과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한국 정부,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행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두산 본사 앞 시위인데,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봉양-2 석탄화력발전소 설립 착공을 반대하며 멈추기를 촉구한 직접행동이다.



탄소 배출량을 감량해나가자는 전 세계적인 인식과 합의와는 반대로, 한국 정부와 기업은 기후약당을 자처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모습은 다소 모순적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결의하고는 한편으로 선언과는 결이 다른 에너지 사업을 승인하고 묵인하는 식이다. 특히 위 석탄발전소가 지어질 하띤 성 지역은 이미 극심한 환경 재난으로 현지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 기업은 석탄발전소 설립 계획에 동참하며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공룡과 친구들은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더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지구의 시간을 앞당겨 쓰며 성장하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다. 그들이 외치듯,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후위기를 초래한 ‘성장 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 이상의 미래를 상상해야 바뀌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마주하기로 했다’ 전시를 관람하며 인상 깊었던 또 다른 점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의 에세이를 모은 모닥 프로젝트다. 더 많은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되고자 2021년 하반기에는 11명의 활동가가 모닥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한다.

에세이에는 활동가로서 겪는 일화나 감정뿐만 아니라 청년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며 드는 고민과 걱정들이 담겨있었다. 모닥 프로젝트가 ‘우리들의 언어로 기후위기를 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라고 들었을 때 미담도 우리들의 언어로 청년을 말하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고 느꼈다. 미담에서 담소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주제에 관해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들,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하려고 노력한다.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도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나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며 그들과 나 사이의 연결을 체감했다.



다른 한 공간에는 비질 활동가 헤린 님이 찍은 사진과 영상이 전시되어 있었다. 비질은 전 세계적인 동물해방 풀뿌리 운동으로,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살장에 찾아가며 육식 산업의 진실을 목격하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활동이다. 전시 공간에는 비인간동물들이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육식 산업의 진실이 기록되고 공유되고 있었다. 비록 비질처럼 ‘직접’ 진실을 목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시가 비질 활동의 일부처럼 이어져 있다고 느껴졌다.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서 ‘여전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내가 비건을 지향해도 혹은 주변 사람들이 비건을 실천하더라도 끊임없이 육식 산업은 돌아가고 있다. 수많은 도살장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같이 판에 박힌 듯 같은 모양으로 비인간동물들을 죽이고 소비한다. 그 구조가 너무 기괴해서 무서웠다. 다만 비질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 듯 행동할 수는 없게 된다. 함께 전시된 11분가량의 영상에는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계속 쉼 울음소리를 내는 닭과 돼지, 플라스틱 폐기물에 잡혀 죽어가는 물살이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 그들의 몸, 그들의 소리,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겁에 질린 표정이 과연 인간과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마주보는 사람들, 극단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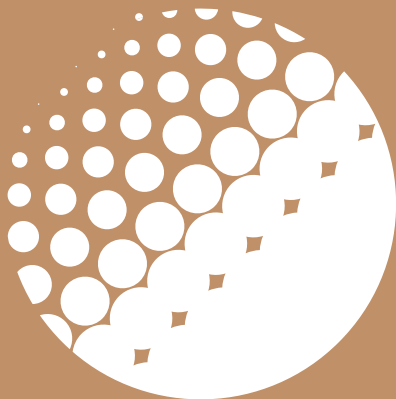
‘우리는 마주하기로 했다’ 전시를 통해 두 공동체와 활동가가 각자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며 현재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허무함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어찌면 작디작은 나부터, 당신으로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는 에너지를 받았다. 전시를 관람하면서 나만 이런 무력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위안받는 이들도 있을 테고, 그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해보자는 다짐을 하는 이들도 있을 테다. 이들이 그리는 ‘미래’에 대해 조금이나마 격려를 보태고 싶다면, 그들이 염려하는 ‘미래’가 내게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면,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5

흙
갈
이



일상에 치여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무너지고 안주하게 되지만,
미담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다시 새로운 열정을 되찾게 됩니다.
‘역시 나는 세상을 바꿔야겠어!’ 하면서 말이죠.

청년 먹거리 연구 소개

모심과살림연구소
청년 먹거리 연구팀

2021년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청년 먹거리 연구를 진행했다. 청년 먹거리 연구는 보통 청년들의 먹거리 실태 혹은 먹거리 문화를 분석해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편적 청년 기준을 상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실태와 문화를 규정한 먹거리 연구는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도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니 그전에, 청년과 먹거리는 너무 멀기만 한 관계처럼 느껴진다.

청년들의 먹거리 담론이라고 하면, 기존 사회에서 정해진 먹거리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분류로 나뉘는 것 같다. 기존 먹거리 담론은 주로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청년들에게 사치스러운 것이 되기도 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의 삶 속에서 먹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우리는 먹지 않고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연구팀에서는 청년들에게 먹거리의 의미는 무엇이며, 일상에서 먹거리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을까? 느끼고 있다면,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그것들을 느끼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한살림하면 ‘건강한’ 먹거리가 먼저 떠오른다. 한살림에서 청년들의 먹거리 인식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거나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한살림에 청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동안 한살림에서 진행한 청년 먹거리 관련 정책과 사업은 주로 지원과 교육에 관련한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이 과연 청년들의 주도적인 운동 참여와 새로운 청년 주체의 유입을 위해 유효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한살림에 청년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드러날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쳐볼 필요도 있다.

현재 한살림에는 약 4,000여 명의 20대 조합원이 있다. 과연 한살림은 이 중 몇 명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들의 삶을 드러내고자 했다. 한살림 조합원이긴 하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존재들의 일상과 먹거리의 연관성,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살림 20대 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 ‘표적집단인터뷰(FGI)’, ‘먹거리 수다회’를 진행했다. 여러 차례 한살림 20대 조합원들과 만나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구팀 또한 20대 청년 조합원으로서 먹거리와 한살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보고서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하겠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한살림에서 더 많은 청년들의 삶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청년들이 삶에서 체감하는 먹거리 문제가 드러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이 동반될 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청년 먹거리 연구 보고서는 2022년 5월 중 발행 예정입니다.

반려 인간으로 사는 법

주석

@sn_coment

“아 맞다, 물!” 하고 후다닥 화분으로 간다. 반백수였던 얼마 전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바빠진 까닭이다. 시간이 널널하던 때에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화분을 들여다보고, 주변 사람들과 키우는 데 드는 걱정이나, 고민, 뿌듯함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연락할 일이 딱히 없던 이들과 오랜만에 연결되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물을 주고, 분갈이를 하고, 햇빛이 잘 들 수 있도록 위치를 옮기는 과정은 사실 나를 돌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 더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타자에 대한 돌봄은 자기 돌봄이기도 하다는 것을, 모든 돌봄은 상호 돌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돌봄에는 역량이 필요하다. 시간도 있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도 있어야 한다. 종종 돈도 든다. 역량이 보장되지 않는 돌봄은 일방적인 희생 혹은 착취로 전락해버린다. 이 역량은 우연히 내가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내가 놓인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몇몇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식물을 진심으로 길러보는 것은 처음인지라 내가 미숙해서인가, 걱정하던 와중에 아버지가 그제 바로 떡잎이라고 알려주셨다. 자신이 지닌 것은 모두 나누고 떨어지는 게 떡잎이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은 죽고 화분을 살린다고.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떨어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음으로서 전체를 살린다. 그들을 보며 난 안타깝거나 슬프지 않았다. 그저 치우거나 떼지 않고 그대로 두어 기억하고 싶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열망만큼, 우리 주변에는 떡잎 같은 이들이 많다. 떡잎을 떼면 그 생명은 죽는다. 그 화분이 죽는다.

#돌봄 #생명

2021년 12월,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과 수다회를 진행했다. 수다회에서 함께 나눈 작은 씨앗을 기르는 과정의 글을 업로드해준 주석의 글을 정리했다.

2기 소감

진아 : 일상에서 마주한 문제들을 공유할 수 있는 ‘미담’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늘 든든했습니다. 미담 2기는 ‘공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였는데, 사실 주거나 활동 공간 등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모여있다는 자체만으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에 매주 1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상에서 겪는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많은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익숙해왔던 사회의 문법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문법을 바꿀 수 있는 큰 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거대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모임이 지속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 : 유난스럽게도 이번 미담 활동을 하면서 만날 때마다 "즐거웠다. 미담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 짧은 시간 만났는데 술 없이도 요즘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하고 바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다.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도 안전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그만큼 계속 미담에 참여하는 게 좋을지 고민되었다. 내 생각을 말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것만큼이나 현실과 괴리감을 느낄 때도 있었고, 미담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다. 미담 활동을 하면서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을 만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어떤 방에 살게 될지 뚜렷한 답을 얻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일 년 간 우리가 나눈 대화들은 차곡차곡 나의 일상에 크고 작은 물결을 만들어냈다. 미담이 있어서 극단 Y의 연극도 만나고, 춤도 배우게 되었고, 벅발도 만나게 되었다. 나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는 시간을 천천히 쌓아가보자는 힘을 얻기도 했다. 이만하면 괜찮은 일 년이었지, 싶다.

슬기 : 언제나 부담없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미담을 만나서 한 해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일상에 치여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무뎌지고 안주하게 되지만, 미담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다시 새로운 열정을 되찾게 됩니다. '역시 나는 세상을 바꿔야겠어!' 하면서 말이죠. 새로운 해에도 즐겁게 미담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무크지 마감하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진 : 미담 2기에서 만난 이야기들은 아주 사적이면서 아주 사회적인 이야기들 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와서 돌아보니, 미담 2기 활동 동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이 있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아주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담 활동을 하면서 아주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힘든시기를 보내왔는데, 미담 덕분에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미담이라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걸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미담 2기만의 고민들이 미담 2기라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미담 2기 참여자 선생님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월별 활동 기록

5월

- 첫 모임 및 OT
- 각자의 관심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 주거/노동/농업
-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인수 마을 방문’
 - > 마주이야기 카페/ 마을 밥상/ 밝은 두레 상점/ 도토리 어린이집 방문
- 함께 읽고 싶은 책 소개하기 : <커밍 업 쇼트>,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 <한국 주거의 공간사>

6월

- 내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혹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이야기하기
 - >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 : 공간, 생명답게 살아갈 권리, 상상력, 이어지는 관계
-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과 관계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사례 찾아보기 : 법씨 학교
모두의 학교, 성미산 마을

7월

- 읽어야지, 하고 안 읽은 책을 같이 읽어드립니다 :
능력주의 사회 타파하기, ‘똑똑함의 숭배’
“능력을 정의하고 다루는 사회의 방식이 다양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고민되어야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다”

8월

- 각자의 이야기로 담소 모임을 진행하다
- 진진의 담소 모임 : '인간관계, 연애, 결혼'

9월

- 진아의 담소 모임 : '나의 두려움에 대하여'
- 슬기의 담소 모임 :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 소리의 담소 모임 : '나의 일에 대해 말하기'
- 예림의 담소 모임 : '나의 원동력'

10월

- 진아의 담소 모임, 그 후 : 나는 무사히 OO할 수 있을까
- 슬기의 담소 모임, 그 후 : 주거와 관련된 모든 문제 찾아보기
- 진진, 연극을 제안하다 : '제1강 : 거절하는 방법' 관람
- '제1강 : 거절하는 방법' 후기 나누기

11월

- 극단 Y와의 인터뷰를 기획하다,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 진진의 담소 모임, 그 후 : 나의 다양한 연애
- 나마주갈과의 인터뷰를 기획하다, 주거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위하여!
- '무위당사람들'에 실릴 미담 소개를 기획하고 작성하다!

12월

- 혜화동 작은 공간에서 극단 Y를 만나다
- 장안동 무아레 서점에서 나마주갈을 만나다 : 나미(나마주갈X미담) 모임의 결성!
- 연구소에서 고민을 함께한 미담 1기, 2기/ 청년 연구진/ 벳발이 함께 모이다 : '웃기듯이 스치지 않아도 인연이다'

1월

- 나마주갈과 주거에 대해 이야기하다 : 주거권 공론화를 위한 방법을 고민, 나의 집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 2021년 미담의 한 해를 돌아보다
- 김공룡과 친구들을 만나다 : 청년기후긴급행동 '우리는 마주 보기로 했다' 전시 방문
- 우리의 이야기를 디자인하다 : 미담 무크지 디자이너 우솔님과 만남

2월

- 극단 Y를 다시 만나다 : '탈파'를 보고 후기 나누기
- 우리의 활동을 정리하다 : 무크지 2호 '익숙함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기획

3월 이후

- 무크지 제작

미래를 위한 담론, <익숙함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미담과 같은 모임을 함께 하고싶은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우리 함께 해요!"

연락처

전 화 02-6931-3608(모심과살림연구소)

이메일 connect.midam@gmail.com

인스타그램 @connect_midam

저자

소리/ 슬기/ 진진/ 진아

함께한 사람들

소리/ 슬기/ 진진/ 진아/ 대범/ 예림/ 익현

발행처

(사)모심과살림연구소

디자인

우슬

@sona_m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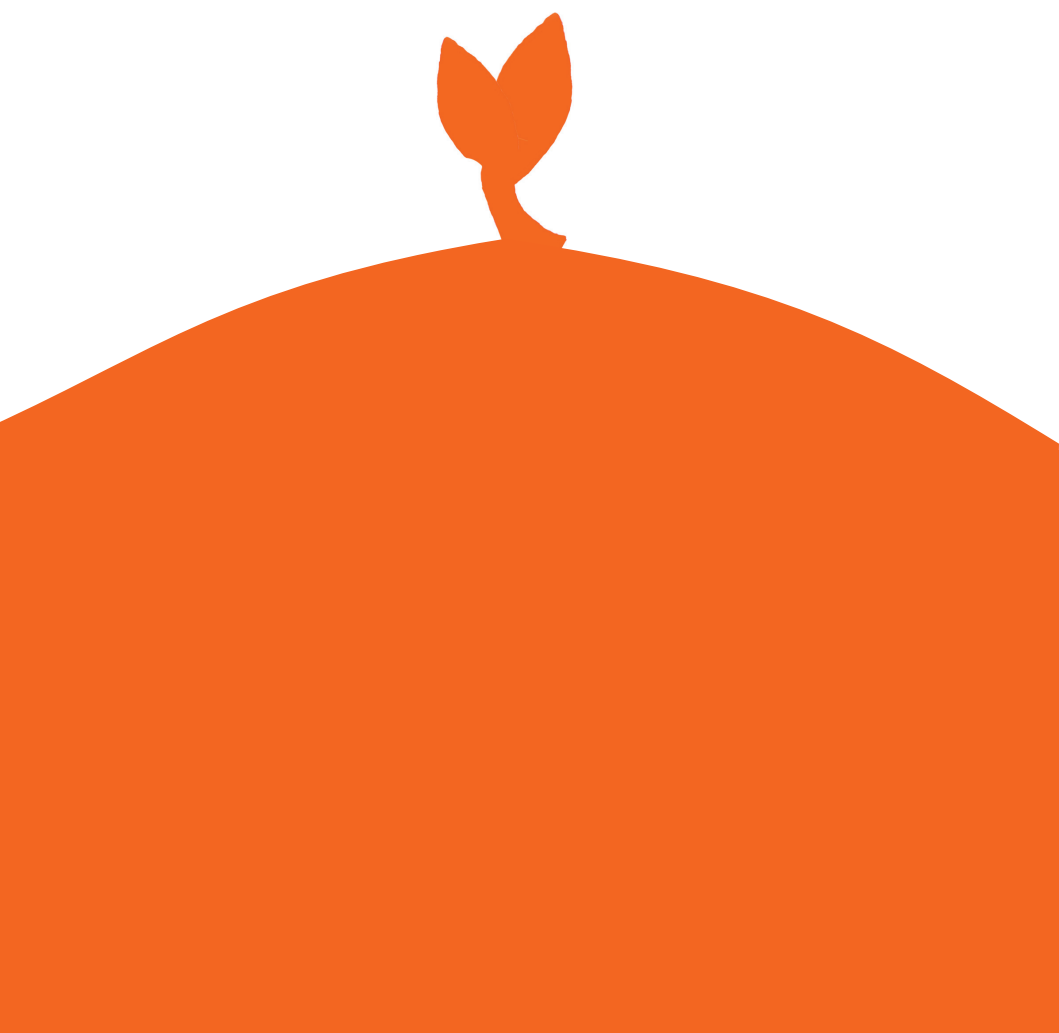
발행일

2021. 05. 11.

ISSN

2950-9270

비매품입니다.





미담



9 772950 927003

ISSN 2950-9270



02